

신한 **트트트** 197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9
05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 ISSUE 1 -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개교
- ISSUE 2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및 졸업식
- ISSUE 3 - 신한대학교 제 2캠퍼스 기숙사 신축

- 빛 · 벚 축제
- 황보상원 교수 대통령상 수상 인터뷰
- 마일리지 장학제도
- 교환학생, 우수학생 인터뷰

신한메디컬센터 센터장 인터뷰
김서룡 교수 인터뷰
동아리 박람회
Culture 서평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특목'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서갑원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Tel. 031 870 3206
- 발행일 2019. 5. 30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박현규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이념과 비전
- 04_ 편집장 논설
- 06_ 신한대학교 대학원 개교
- 12_ 신한메디칼센터 센터장 인터뷰
- 16_ 관광의료학과 소개
- 18_ 신보건계열학과 취업률, 자격증
- 22_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및 졸업식
- 26_ 빛 벅 축제
- 30_ 신한대 제2캠퍼스 기숙사 신축
- 34_ 교환학생, 우수학생 인터뷰
- 40_ 황보상원 교수 대통령상 수상 인터뷰
- 42_ 김서룡 교수 인터뷰
- 44_ 마일리지 장학제도
- 46_ 단과대학 학생회 인터뷰
- 48_ 신유지 교수 친환경 소재 기반 작품
- 50_ 간호학과 권순규 학생 인터뷰
- 52_ 연극동아리 창설 후 첫 공연
- 56_ 동아리 박람회
- 58_ 객 더 리퍼
- 60_ 황거: 유관순 이야기
- 62_ 이방인
- 66_ 이모저모
- 72_ 기부금 현황
- 74_ 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19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변화의 아침이 온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는 쌓이고 쌓여 ‘세월’을 만들어 가겠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익숙하게 ‘매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과 그 속의 변화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저 똑같은 매일이 될 것이고, 사소한 일상의 변화를 꿰뚫어 본다면 자신만의 내일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한대학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만큼, 이번 신한톡톡 197호도 학생들에게 더욱 귀 기울이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의 기사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대학원 개교”부터 “신한메디컬센터”에 관한 이야기 까지, 신한대학교의 아침은 나날이 선명해지는 모습입니다.

학교의 변화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한 발자국은 신한대학교의 내일, 그리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변화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신한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 최수민 편집장

SHINHAN UNIVERSITY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대규모 확대/개편

경기 북부의 유일한 대규모 대학원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취창업 인큐베이터로서 기능
현장 위주 교육을 통해 연구와 실전에 모두 강한 복합형 인재 양성

사람들은 종종 대학교가 교육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대학이 의무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가장 큰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의무교육 과정 동안 숨 막히게 달려왔으니 대학교 이후부터 다소 풀여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오늘날 들어 그러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사회에선 갈수록 더 많이 준비된 인재들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대학교 교육만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대학 외의 교육을 통해 추가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힐 것인가, 아니면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인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2019년 신한대학교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 과정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학원 정원을 44명에서 144명으로 대규모 증원했다. 특히 특수대학원(석사)만 있던 과정에서 일반 대학원정(석사, 박사)과정으로 증설 개편되었으며, 7개 학과에서 15개학과 30여전공으로 변모하여 사실상 대학원 신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15개 학과 30여개 전공으로 확대한 것

은 사실상 새로운 대학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노력이 들었다고 평가받는 대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신한대학교 대학원 교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은 비록 대학원으로써는 후발주자이지만, 타 대학원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내/외적으로 공통된 평가이다. 특히 이번 일반대학원의 대규모 확대/개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구효진 대학원장은 신한대학교 대학원의 경쟁력에 강한 자신감을 가졌다.

“역사가 오래된 대학원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에 얽매어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후발주자이며, 그렇기에 과거의 사례들을 타산지석 삼고 현재의 상황에 적응해 가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구효진 대학원장의 설명이다. 이어서 “평범한 도시보다 계획신도시의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듯이,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서 구축된 다양한 융복합형 학과를 통해 현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변해갈 세상에 맞춰서 시류에 맞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효진 대학원장이 강조하듯, 신한대학교 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융복합형 학과의 강세에 있다. 한편, 방승환 교학부장은 대부분의 대학원이 3, 4차 모집까지 진행하는 등 신입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학원은 1차 모집에서 정원을 모두 채우고도 모자라 입학 경쟁률까지 생긴 이유 역시 융복합형 학과에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대학원들은 대학교의 학과를 꾸리고 있다. 하지만 신한대학교 대학원은 융복합을 통해 사회에 진정 필요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들을 다수 개설함으로써 다른 대학원들이 겪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방승환 교학부장의 설명이다.

또한, 신한대학교 대학원의 대표적인 융복합형 학과로 국제교류학과와 남북협력학과를 꼽았다. 이들 학과는 신한대학교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학과로서,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한반도 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될 경기북부를 교육의 허브로 운영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역사회친화적 학과라는 것이다.

신한대학교 대학원은 이외에도 영상, 스포츠 등의 분야를 다루는 실전 위주의 융복합형 학과를 다수 운용하면서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

해 연구와 실전에 모두 강한 복합형 인재의 산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한대학교 대학원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화에 있다. 배예미 계장은 일방형이 아닌 양방향 세계화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학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외국어 사용 강의는 대부분 영어나 특정 언어만을 활용한다. 이는 한국인 학생들이 다른 언어를 익히거나, 외국 학생들이 강의를 쉽게 접하는 데에는 좋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녹아들도록 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신한대학교 대학원에서는 통합교육학과, 호텔공간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ICT기계공학과 등 소통이 특히 강조되는 인문사회/공학 계열 학과들을 ‘이중언어학과’로 지정,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사용하여 나중에는 상호간의 자연스러운 통역까지 가능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배예미 계장의 설명이다.

김호연 입학담당자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교육 방침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의 학생들이 특히 많으며, 개중 신한대학교 학부 과정을 거쳐서 입학하는 원생들은 물론이고 곧장 신한대학교 대학원을 택하는 유학생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구효진 대학원장은 “예컨대 중국의 경우, 현지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다가 박사학위를 위해 본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국에서 이미 중책을 맡고 있거나 그런 직종으로 나아가갈 포부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곧 신한대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욱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원생 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효진 대학원장은 이를 위해 유학원이나 교류처를 통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의 직접 입학을 유도하는 것을 중점사안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대학과 MOU를 맺고 보다 양질의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 입시설명회 역시 타 업체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비록 힘든 길이 되겠지만, 정제되지 않았을 뿐, 보다 뛰어난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

1. 일반대학원

구분	계열	학 과	전공	학위종별	신입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인문사회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육컨텐츠개발전공	교육학		
			스포츠융합컨텐츠개발전공	체육학		
			문화컨텐츠개발전공	문학		
		남북협력복지행정학과	남북협력복지전공	사회복지학		
			남북협력행정전공	행정학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학		
		글로벌경영학과	경영전공	경영학		
			국제경영전공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 관광학, 행정학		
			DMZ관광정책학전공			
	통합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교육학			
		특수교육학전공				
		유아교육학전공				
	자연과학	통합대체의학과	카이로프랙틱전공	보건학		
			자연·산림심리치유전공			
			동의학전공			
			북한보건의료연구전공			
		보건기술융합과	방사선학전공	보건학		
			치기공학전공			
			치위생학전공			
			임상병리학전공			
		바이오식품외식산업학과	안경광학전공	이학		
			바이오식품전공			
	외식산업전공					
	간호학과	대체식품개발전공	간호학			
		간호학전공				
	공학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기후환경에너지전공	공학		
		스마트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전공			
		ICT기계공학과	열유체전공			
	예체능	스포츠건강학과	고체 및 생산전공	체육학		
			운동재활전공			
		서비스디자인학과	스포츠지도전공	디자인학		
	서비스디자인학과	서비스디자인전공				
합계	4계열	15개 학과	33개 전공		73명	46명

2. 지식복지대학원

구분	계열	학 과	전공	학위종별	신입생
					석사과정
지식복지대학원	인문사회	임상사회복지학과	임상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	
		예술심리치료학과	통합예술치료전공	예술치료학	
		신한류학과	한국학전공	문학	
			한국문화전공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행정학		
	자연과학	카이로프랙틱학과	카이로프랙틱전공	체육학	
	공학	스마트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공학	
		도시기반부동산학과	도시기반학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합계	3계열	7개 학과	9개 전공	

재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좋은 방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구효진 대학원장의 설명이다. 무리하게 해외로 진출하기 보다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인재들을 육성하여 그들을 통해 차근차근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 인재들의 성과를 해외에 선보이기도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학과가 포함된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전공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이미 수역에 달하는 지원 하에 캄보디아에서 현지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방승환 교학부장은 “교육 콘텐츠만큼 현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신한대학교 대학원생들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한대학교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세계화에 맞추어져 있다는 증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프로젝트 전개가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해외 진출을 이야기하며 구효진 대학원장이 강조한 것은 신한대학교의 ‘뿌리’였다. 대한민국의 보건계열 인력 수준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신한대학교의 전신인 신홍보건전문대학은 보건계열 교육에서 한국 최고라고 불리던 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보통 2년제

기술계열 대학과 4년제 인문계열 대학이 통폐합을 거치면 인문계열이 기술계열을 잡아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한대학교는 반대이다. 신한대학교의 기반은 신홍보건전문대학에서 출발한 기술/실습을 중시하는 교육이며, 그렇기에 순수한 학문보다는 전문적 기술과 현장감을 기반으로 한 살아있는 학문의 요람으로써 기능한다”라는 것이 구효진 대학원장의 설명이다.

비록 스스로가 순수학문인 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구효진 대학원장이지만, 긴 유럽생활을 통해 대학이 그저 인문학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시대가 바뀌었다. 무조건적으로 인문학이 공학보다 뛰어난 학문이라는 인식은 구시대의 유산에 불과하다. 대학은 무작정 인문학 교육을 펼치기 보다는 그저 인문학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스스로의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것은 대학생 개인의 몫이 되어야만 한다. 이제는 기술과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의 인문학적 소양을 스스로 쌓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 구효진 대학원장의 말이다.

구효진 대학원장은 신한대학교 대학원이 과거 신홍보건전문대학의 가치를 이어받아 기술과 기능, 실천과 실천의 학문을 베풀어 나가는 취업과 창업의 요람으로 성장할 거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 자신감의 근원으로, 구효진 대학원장은 신한대학교 대학원이 지닌 강

점 중 하나로서 신홍보건전문대학의 예산을 꼽았다. “신한대학교 동문회 (전 신홍대학교 동문회)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조직이며, 보건계열 직종의 최전선에 있는 동문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재학생들과 연계하여 친분을 쌓고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신한대학교 대학원은 이러한 신한대학교 동문회의 가치를 이어받아, 과거의 신홍보건전문대학과 현재의 신한대학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확대/개편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구효진 대학원장은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며 손사래를 쳤다. “신한대학교 동문회장이신 이석재 회장을 필두로 많은 동문회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서 전격적인 확대가 가능 했다.”며, 이러한 지원이 있었기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한편으로 신한대학교의 뿌리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의미를 이어가는 방식의 차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후발주자이기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동문회를 통해 다른 대학원에 밀리지 않는 역사와 유산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맞춰 개원하는 신한대학교 메디컬센터 역시 그러한 운영 방침에 박차를 가한다. 신한대학교 메디컬센터는 단순한 진료 시설이 아닌 신한대학교가 지니고 있는 보건 및 헬스/뷰티 기술이 집약된 시설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환경을 제공해주는 취/창업 허브이자 인큐베이터라고 볼 수 있다. 신한대학교 대학원 통합대체의학과는 해당 센터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발전 기회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대학교 대학원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이 그것이다. 학문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금전적인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신한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 직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것과 별개로 성적 우수자 역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입학 사이에 기간차가 있더라도 신한대학교 동문이라면 50%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고도화된 교육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5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살아있는 학문의 요람.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취/창업 인큐베이터이자 경기 북부의 교육 허브로 발돋움하는 신한대학교 대학원은 든든한 밑바탕과 확고한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후발주자가 가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들 못지않은 훌륭한 교육기관을 일궈낸 구효진 대학원장과 김옥자 부원장,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보낸 이석재 신한대 동문회장, 그리고 방승환 교학부장을 비롯한 수많은 교직원/관계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신한대학교 대학원이 그려낼 미래를 기대해 본다.

☎ 박현규 기자





A부터 Z까지 알찬 의원, 신한메디컬센터 개원

건강한 “신한인”을 보장
보건관련 학과 및 사회복지학과의 실습기관 확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시적인 지역사회봉사의 역할까지

신한메디컬센터는 이상구 원장이 다산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기부를 통해 이전 설치를 한 것으로, 신한대학교만의 부설의원이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외래 진료 서비스, 각종 신체검사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 보건 사업을 담당할 ‘신한치과’가 입점 준비 중(3층, 치위생학과 졸업생과 학생 9명 채용)이며 ‘신한 한의원’을 설립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1층에는 ‘신한 약국’, 지하층에는 ‘신한 메디컬 피트니스’, 4층에는 ‘신한메디컬에스테틱’이 개원 준비 중이다.

모든 신한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연간 1회 종합 건강검진과 체형검사 및 체력 측정을 실시한다. 이때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치료 등(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 및 수술을 제외한 가벼운 외과적 질환 등) 1차 의료 서비스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처방 및 맞춤형 운동 지도와 스케일링 등 구강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 및 바이오생태보건대학(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안경광학과, 부티헬스학과), 식품조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습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신한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뿐만 아니라, 대학 인근의 주민들도 대학 부설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지역의 노인정,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문 진료, 해외 봉사에서 의료 봉사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신한대학교에서 위탁받거나 운영 중인 건강강정센터, 노인 요양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방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신한메디컬센터의 이상구 원장을 만나 센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다산 의원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신한대학교에 병원을 기증하고 신한 메디컬센터의 운영을 맡게 된 이상구 원장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임상의로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졸업할 당시 저의 의사 면허번호가 47000번대였는데, 지금은 의사 숫자가 1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의사가 아닌, 정책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석박사 학위도 보건학과 정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한메디컬센터와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학교 울타리 안에 편의시설을 가둬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외국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방식이 특수한 거죠. 대학에 울타리를 딱히 두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도록 개방을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모인 곳이 신한대학교잖아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망월사역 위쪽으로는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약국도 큰 길가에 하나 있는데, 철길 밑에 지하도를 지나가야 해서 가는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의) 약사님께 부탁드려서 신한 메디컬센터의 1층에 들어오시게 되었

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셨던 약사님이시거든요. 지역주민들을 다 아세요. 그동안은 의원 처방 없이 바로 약을 조제하셨었는데, 이제는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기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한메디컬센터는 일단 소속이 학교법인 신흥학원입니다. 즉 신한대학교의 복지사업 및 수익사업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외부 병원에서 비싼 비용을 내면서 진료를 받던 것을 이제는 학교 병원에서 비용의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에 따른 수입은 모두 학교 발전 기금과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법인의 전출금이 부족해서 학교가 피해보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학교의 보건 관련 학과는 실습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선은 보건의료 관련 각종 학교벤처와 학생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강의를 받고 실습을 나가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습하기 전,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만 검사를 하는데 검진 비용 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디컬센터에서는 17종의 혈액검사를 더 해줘요. 왜냐하면 총장님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맡아달라”라고 하셨으니까요. 한번 피를 뽑아서 3종 검사를 하나 17종 검사를 하나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17종 검사를 통해서 많은 질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특히 치위생학과는 직업병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예요. 고개를 많이 숙여야 하니까요. 손목관절증후군도 많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병을 확인할 수 있게끔 X-ray를 찍어줘요. 한마디로 실습장이 마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건강도 책임지는 것이죠.

이 외에도 보건 관련 학과의 실습장 및 졸업생 고용을 창출한다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실현시킬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을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것은 설립될 각종 학교 벤처와 학생 창업이 앞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학교와 학생들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꼬집어 내어주는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뷰티헬스학과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4년제 예스테틱 관련 학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방안을 교수님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치기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치기공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아웃소싱을 받아 치기공 보철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매우 유망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우리 졸업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시기부터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해 나간다면, 치기공과에 밝은 미래가 예상됩니다.

메디컬센터를 설립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사실 경기북부청사 앞에 인테리어까지 마친 학교 재단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오

기 편해야 학교 건물로써 의미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학교 안에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활성화되어있지 않았던 학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에 신한 메디컬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신한 의원’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총장님께서 앞으로 커질 것을 예상하고 ‘신한메디컬센터’로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셔서 현재의 ‘신한메디컬센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병원들과 다른 신한메디컬센터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대로 신한 메디컬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병원입니다. 특히 총장님의 지시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건강관리실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진료하게 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주치의가 한 분씩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은 병원을 ‘아파야 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예방 보건이나, 건강증진, 혹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보시는 신한메디컬센터,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신한메디컬센터는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 아직은 너무 초라합니다. 근본적으로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까지는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우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태어날 것입니다. 건물의 앞마당과 학교 쪽 뒷마당은 학생들에게는 휴식의 장소가 될 것이고, 등산객들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고, 지하철을 타고 나들이를 다녀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잠깐 쉬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루프탑 정원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창업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신가요?

당장은 공사 중이라서 여건이 안 되니,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소속의 건물이다 보니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진입로부터 현관과 입구, 건물 외벽에도 간판은 물론 홍보물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우리 학교 졸업생을 위한 ‘건강 인증제’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체에 질병이 없도록 하고, 단순히 건강한 상태로 졸업시키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보건교육과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식과 습관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졸업생들이 건강하게 되어서 졸업하는 것에 더해, 취업에도 스펙이 도움이 되고, 졸업 후의 인생살이도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메디컬센터 개원 보고회를 가지셨는데,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변화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소통이 오가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직접 총학생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나 학교가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대학교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한대학교가 경기도에 있지만 사실 서울권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커트라인이 꽤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어릴 때부터 ‘예쁘다, 예쁘다’하고 자란 아이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서 큰소리도 치면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맨날 구박받고 자란 아이는 의기소침해져서 다른 곳에서도 구박받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에게 ‘훌륭함

니다. 뛰어난 겁니다. 우수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그걸 느껴야 해요.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오지 않았는데, 학교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계기로 학교 차원에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건강과 활동적인 생활이 행복의 필수 조건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같이 이해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신한메디컬센터 이상구 원장의 말처럼, 신한대학교는 매년, 매일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복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진료까지 책임진다는 신한메디컬센터의 개원 목적은 마치 서갑원 총장과 이상구 원장의 큰 뜻과 맞닿아 있었다. 그들이 확인했듯이 신한메디컬센터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학교의 자체 ‘브랜드’로써 학교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실시 예정인 ‘건강 인증제’와 다양한 학과들과의 연계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 최수민 기자



글로벌 의료관광 서비스, 신한대가 책임진다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국제의료관광산업을 알아보다
신한대, 국제의료관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아
김미숙 책임 지도교수 “졸업과 동시에 경쟁력 높일 것으로 기대”



최근 신한대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전공을 도입하고 있다. 그중 올해부터 시행하는 연계 전공(interdepartmental major)은 모집단위 설치 전공(학과)은 아니지만,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를 연계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계 전공제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기회를 크게 넓혀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들을 이수하게 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에서 올해 부터 시행하는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은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우리 나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개설되었다. 현재 간호학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국제어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공공행정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이 필요한 이유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의 개설 취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환경을 이해하고 글로벌화된 시각을 갖추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학과 간의 학문적 연계를 통하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문화 시대에 부합되는 글로벌 의료관광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의 목적이자 필요성이다. 일개 학과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타 대학의 관련 학과와 달리 우리 대학의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은 현재 각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 의료, 관광, 외국어 교육 분야의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가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을 수료한 학생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 전공 외에 연계 전공 교과목 이수를 통해 졸업 시 학위기에 연계 전공을 이수했음이 기재된다.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의 책임 지도 교수인 간호학과 김미숙 교수는 “주 전공 외에 다른 새로운 전공 하나를 추가하게 되므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졸업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의 전망

국제의료관광 연계 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갖춰야 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보건의료 및 관광에 관해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에 관한 전문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진로 분야로는 병원·의원, 공단 및 연구기관, 여행사 및 의료관광 에이전시, 해외 의료기관 등이 있다. 관련 취업 분야로는 국제의료 서비스, 의료 코디네이션, 외국인 진료 병원 기관 서비스,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해외 홍보 업무 등이 있다.

국제의료관광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각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메디컬센터를 설립하는 등 나날이 국제의료관광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의료관광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분야로써, 특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까지 8년간 외국인 환자(의료관광객) 수가 연평균 29.3%씩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경 없는 지구촌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세계 의료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홍보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취업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한다.

김미숙 교수는 국제 의료관광 연계 전공에 대해 “현재 우리 대학에 이미 개설되어있는 각 학과별 교과목 연계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학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전공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향후 많은 학생들이 국제 의료관광 연계 전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신한대 보건계열은 입시와 자격증, 취업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해왔기 때문에 국제 의료관광 연계전공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된다.

반세기 신한대학교와 함께한 바이오생태보건대학

반세기 신한대학교의 원동력, 특장분야로서 계속되는 발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신한대학교



반세기 전 동족상잔의 6.25전쟁 이후 경기북부는 험벗고 굶주린 곳이었다. 거리마다 고아가 넘쳐났고 전쟁으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은 자식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었다. 그보다 더 큰 환란은 질병이었다. 현재와 같은 보건 의료 인프라와 복지 정책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 속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의 기회는 없다시피 했다. 병마와 홀로 싸워야 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치료는 생존 그 자체였다. 신한대학교가 경기북부에 보건계열의 대학을 설립한 이유였다. 암울했던 역사의 시기에서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설립된 신한대학교의 보건계열학과는 오늘날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다. 1960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신흥학원으로 시작해 1972년 방사선과, 식품영양과, 임상병리과, 치기공과를 필두로 세워진 신흥보건전문학교가 바로 오늘날 신한대학교의 전신이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일념 하에 50여년의 역사 속에서 신흥보건전문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이라는 형태로 전해졌다.

무려 반세기가 넘게 지속해온 보건계열 교육으로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은 경기북부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보건계열 교육의 허브로 떠올랐다. 현장중심의 실습·기술 교육과 오랜 교육 노하우로 보건관련 핵심교육기관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2014년 신한대학교가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은 눈에 띄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매년 최상위권의 평균 합격률을 기록하는 것 또한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 되었다. 치기공학과는 2년 연속 '전원 응시, 전원 합격'의 대기록을 세웠고, 방사선(97.4%)과 치위생학(95.4%)과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전국 최상위 기록을 지켜냈다. 지난 몇 년간 90% 후반대의 높은 합격률을 자랑했던 임상병리학과는 이번 46회 임상병리사 시험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임상병리사 시험이 지난 몇 년간의 시험들 중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재시까지 치를 뻔한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성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경광학과와 식품조리학과 역시 전국 합격률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

랜 역사가 헛된 시간이 아님을 당당히 증명해냈다.

하지만, 이런 높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의 궁극적 목표는 타 대학같이 단순한 '국시 합격'이 아니다. 보건계열 학과들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국시란 보건대 학생들이 거쳐야 할 당연한 관문으로 취급되고, 국시 이후의 진로와 시야를 넓혀주는 교육 위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비교적 취업문이 좁아진 병원 외에 연구기관, 검역소, 보건공무원(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의료장비 및 시약 시장, 바이오(BIO)공학 기업 등 소위 '레드 오션'으로 취급되는 정석적인 보건인의 진로를 피해 새롭고 넓은 '블루 오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인 셈이다. '공중보건학', '분자생물학', '의생명공학' 등 타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한 전문적 지식을 학과 커리큘럼에 설계한 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취업시장을 겨냥한 전략의 일환이다.

학교 측 역시 보건계열 학과의 '융복합' 가능성에 집중하여 올해부터 연계전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한대학교는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국제어학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공공행정학과를 대상으로 연계전공 '의료관광학과'를 운영한다. 의학과 관광이라는 서로 다른 두 분야를 융합함으로써, 각 전공 분야의 좁아지는 취업문에 대비하고 미래시대에 대비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기량을 높이기 위한 바이오생태보건대학 교수진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순히 의료보건에 대한 '기술'만 익혀도 취업과 진로에 걱정이 없던 시기는 끝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학과	해당 시험	합격률	전국 평균 합격률
안경광학과	제 31회 안경사	86.7%	76.8%
식품조리학과	제 42회 영양사	87%	69.8%
임상병리학과	제 46회 임상병리사	83%	64.2%
방사선학과	제 46회 방사선사	97.4%	79.7%
치기공학과	제 46회 치기공사	100% (2년 연속)	83.5%
치위생학과	제 46회 치위생사	95.4%	80%

에 맞춰 각 학과 교수진은 학생들의 학술대회참여자 교내 학술제 활동, 논문작성,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치위생학과의 경우 논문 작성에 관한 교육 커리큘럼이 짜여있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치위생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총 6개 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방사선학과와 치기공학과 역시 학생들의 연구 논문 활동을 적극 장려해왔다. 그 결과 방사선학과는 지난 3월 연대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학술연구논문 대회에서 대상을, 치기공학과는 2018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국제 종합 학술대회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상병리학과는 교수진이 국가연구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학생과 교수가 함께 연구하며 학생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과 실천 경험을 쌓아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현장실습만큼의 간접경험을 제공하며, 졸업 이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속 자신감의 원동력이 된다.

한편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학과의 힘은 단순히 교내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이미 현장에 나가있는 많은 유능한 동문 선배들 역시 신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다. 일만 이상의 수를 자랑하는 신한대학교 보건계열 동문들은 아직까지 현장에 남아 오늘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재학생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이미 취업문을 뚫고 자리 잡은 졸업생 선배와 재학생 후배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자리를 갖는 학과도 있으며, 이런 자리를 통해 재학생들은 본인이 미래에 취업하게 될 장소에 대한 지식

과 현실적인 조언을 받는 등 많은 조력을 받는다. 또 이런 자리가 없더라도, 실제 전공 분야의 취업 필드로 진출하면 꼭 파트마다 한두 명씩은 '신흥보건전문대학' 출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최근 졸업생들의 증언이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라는 노랫말처럼, 신한대학교 동문들은 이상적인 관계 구조를 유지하며 재학생들에게 타 대학생들이 갖지 못한 힘을 전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학과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이 느꼈던 아쉬운 점이 없던 것은 아니다. 그중 가장 큰 요소는 반세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대병원이 없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신한대학교 보건계열학과보다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자대병원이 존재하는 대학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곧 지나간 하나의 순간에 불과하게 되었다.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신한대학교는 보건계열학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어느덧 신한대학교의 자대병원이라 할 수 있는 '신한메디컬센터'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는 신한대학교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일일뿐더러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건 및 간호학과와 커리큘럼에 새로운 양상과 기회를 불러올 것이다. 재학생들에게는 실습의 장이, 졸업생들에게는 모교의 지원이 있는 취업전선이 되기 때문이다.

온갖 사건과 변화들이 난무했던 지난 50여년동안 신한대학교는 굳세게 버티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1972년 개교 당시 험벗은 경기북부에서 시작한 2년제 '신흥보건전문대'부터 4년제 대학교인 '신한대학교'로 탈피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일반대학원설립과 자대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메디컬센터의 개원까지 반세기라는 시간이 걸렸다. 특정 대학이 사실상 큰 기반 없이 오늘날 신한대학교의 위치까지 올라온 케이스는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는다. 이제부터는 지난 반세기동안 쌓아온 것들을 발판삼아 더 빨리, 더 높게 도약하는 신한대학교로 변모할 일만 남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김민성 기자, 김민주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2019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및 2018학년도 학위 수여식 개최

개교 이래 수시모집 최다 지원자 경쟁률 뚫고 2019학년도 총 1,609명의 '신한인'의 시작
2018학년도 전기 졸업식 석학사 1,530명 학위 받고 사회인으로서 거듭나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1일 총 3일간 강원도 원주시 한솔오크벨리에서 201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신한대학교에서 첫 출발을 시작한 신입생들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 '신한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은 1,200명의 신입생과 이종원 부총장, 처장단, 학장단, 교직원, 학생간부 등 총 1,550명이 함께했다. 신입생들은 국가와 인류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신한대학교 교육목표와 대학발전계획인 'STARTQ Project' 실천과제를 소개 받고 '신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였다. 또한, 신입생들은 앞으로 캠퍼스 생활을 함께할 학우들과 선배들을 처음으로 대면하며 서로 친밀감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신입생들은 다양한 특강과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제도, 학과별 강의 목록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배우고 학과 교수님과의 만남도 가졌다. 이번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매드클라운, 청하, 위너의 축하공연과 학과별 장기자랑으로 행사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무알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원칙으로 해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대학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입생의 조기적응을 도운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올해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성황리에 마무리 된 이후, 일주일 뒤인 2월 28일에 새내기 '신한인'들을 위한 두 번째 행사가 열렸다. 망월사 제 1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2019학년도 신한대학교 입학식이 개최된 것이다. 올해 입시 경쟁은 개교 이래 최다인원 수시모집 지원 및 전국 3위의 경시모집 경쟁률을 달성할 만큼 치열했다.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은 총 1,609명이다.





이번 입학식에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안현수 이사장 및 이사진들, 신한대 서갑원 총장, 이석재 총문화장 등 교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신한대학교 학생으로서 첫 출발을 하는 새내기들의 입학에 축하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이번 신입생들을 위해 직접 촬영한 축하동영상을 보내오며 후배를 향한 진심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디자인학부 신우식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입학식 행사는 서갑원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및 우수입학생 장학증서 수여, 환영사, 안현수 목사(신흥학원 이사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신한대학교의 역사와 2019학년도 입시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영상 시청과 공연예술전공 학생들의 신입생 입학 축하 공연 무대로 입학식의 즐거움을 더했다.

서갑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학에서 정답을 찾을 것인가, 문제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신한대학교 학생들은 조직에 긴장을 풀어놓고, 사회에 활력을 풀어놓으며, 거대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 총장은 "공감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 공감능력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한대학교의 캠퍼스가 새로운 신입생들의 활기로 가득 차는 한편, 지난 2월 22일 신한대학교 망월사 제 1캠퍼스 은혜관에서는 아쉬운 이별의 순간을 보냈다. 신한대학교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고 사회 각지로 진출하게 된 졸업생들의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개최된 것이다. 이 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494명, 석사 36명이 신한대학교 명의의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서갑원 총장을 비롯하여 설립자 강신경 목사, 초대총장 김병옥 총장, 안현수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및 이사진, 강성중 이사장 등 교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용섭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번 학위수여식은 박효철 교무연구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서갑원 총장의 학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 총장식사로 진행되었다. 제 2대 총학생회장 경동희 학생(미디어언론학과)이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한 재학생송사를 낭독하였고, 제 1대 총학생회장 현승환 학생(글로벌통상경영학과)이 답사를 통해 학교와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갑원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오늘 졸업생들은 부모가 시켜줬던 공부가 끝나고 더 무서운 공부가 시작되는 진정한 삶의 문턱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오늘의 학위는 학생들의 노고이자 부모님들의 헌신에 대한 증명으로 모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 총장은 "교직원들은 남아서 더욱 훌륭한 모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졸업생들은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한대학교, '제 3회 빛 벚 축제' 개최

힐링, 자유, 건강, 소소, 여유의 가치를 묻다
참가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힐링 한마당

2019 신한
빛 벚
축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현대인들은 화려하고 거대한 것보다, 작고 소소한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신한대학교는 지난 4월 11일, 동두천 캠퍼스에서 '힐링', '자유', '건강', '소소', '여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슬로건들을 바탕으로 제3회 빛·벚축제를 개최했다. 신한대학교가 동두천시 보건소와 동두천시 정신 건강 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빛 벚 축제'는 나이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봄의 청취를 통한 힐링의 장소를 제공했다. 지난 2년간 오직 '화합'과 '즐거움'만을 추구했던 방향에서, 이제는 더 넓고 다양한 의미를 추구하는 축제로 나아간 셈이다.

'소소한 것들의 가치'를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되었으나, 소소함 외에 즐거움의 요소가 없던 것은 아니다. 따스한 바람과 함께 피어난 산과 나무의 봄꽃들을 환영한다는 축제의 느낌을 살려, 참가자들도 즐기면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올해 '빛·벚축제'에는 ▲카이로프랙틱 ▲세계전통의상체험 ▲헤나(타투)체험 및 사진 전시 ▲찾아가는 상담센터(건강증진, 자살예방, 학생상담 등) ▲찾아가는 진로상담 ▲허그 및 사진 찍어드립니다 ▲방송부스 체험 및 벚꽃 인증샷 ▲붕어빵 나눔 ▲입시 홍보 및 설명 ▲Coffee Free카페 ▲유튜브 영상 상영(건강) 및 상담 ▲카르멜 3관 개관 축하 'Open-Day' 이벤트 ▲소형자동차 체험 등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특히 동두천시 보건소와 정신 건강 복지센터가 담당하는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클리닉을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외에도 흔히 볼 수 없는 '카이로프랙틱'과 '소형 자동차 체험' 등의 부스가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부스들이 상시 운영되고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공강시간을 활용해 즐긴 덕에, 신한대학교 동두천 캠퍼스에는 이날 유독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아울러, 당일 오전에는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의 주관으로 본교 여학당의 유학생 및 지역 외국인들을 위한 '제4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장기 자랑 경연대회'가 동두천 캠퍼스 로템관에서 진행됐다. 이어 국제어학센터는 외국인과 재학생들에게 도시락 무료 나눔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축제에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3회 빛·벗축제'는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학생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 날 축제에서는 넓은 부지의 캠퍼스와, 주변 경관을 활용하여 곳곳에 부스와 별도로 '콘텐츠 존'을 설치하여 만인 교류(交流)의 장을 마련했다. ▲음식 거리(푸드 트럭, 장터 등) ▲보드게임 ▲버스킹 존 ▲피크닉 존 ▲벚꽃 사진 전시회 등이 개설되어 재학생과 유학생, 심지어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와 저마다의 각기 다른 축제의 의미를 찾았다. 화려한 의상을 차려 입고 버스킹 공연을 통해 자유를 찾는 학생, 강의와 강의 사이 짧은 시간동안 마련된 피크닉 존에서 여유를 찾는 학생, 아름다운 경관 속에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과 음식을 먹으며 힐링을 하는 학생 등 이들에게 '빛·벗축제'는 각기 다른 의미로 진행되었다. 대규모의 화려한 공연과 행사로 치장되었던 지난 1,2회 때의 빛·벗 축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화려함과 큰 스케일이 곧 축제의 가치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확실한 여유와 소소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의 변화는 동두천 캠퍼스 재학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빛·벗축제'를 기존의 '빛·벗 축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섬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선혜 학생은 "작년보다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부스(포차 장터, 푸드 트럭 등)와 콘텐츠의 수가 늘어났다"라며 축제 자체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1,2회 '빛·벗 축제'가 공간인 학생이 많은 금요일에 진행되어 참여율이 아쉬웠던 반면, 올해는 목요일에 진행되어 참여율 자체도 크게 올랐고 더욱 축제의 분위기가 낫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의 진행에 있어서 동두천 캠퍼스를 왕래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의 위치가 변한 점과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을 이었다. 교통편이 열악한 동두천 캠퍼스 특성상 동두천캠퍼스 재학

생들은 셔틀버스의 의존도가 높는데, 셔틀버스 승강장의 변동이 재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증차된 셔틀버스 간격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뒤따랐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동두천 캠퍼스의 '빛·벗축제'가 겪고, 해결해나가야 할 남은 과제인 것 같다고 전해주었다.

전반적으로, 올해의 '빛·벗축제'는 말 그대로 소소함 속에 숨은 보석같은 느낌이었다. 거대함과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요즘의 축제와는 다르게, 학교 캠퍼스 그 자체에 있는 '소소함'의 가치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빛·벗 축제' 진행 관계자는 "이번 '빛·벗 축제'는 대규모의 행사나 콘테스트를 진행하기보다, 학교를 찾은 사람들에게 힐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제껏 추구했던 축제의 강렬한 분위기보다, 다가온 봄을 한껏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추구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의 의도대로, 이번 '빛·벗축제'는 그 슬로건이었던 힐링, 자유, 건강, 소소, 여유를 효과적으로 구상했고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더 나은 3회 째의 '빛·벗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개최될 '4회 빛·벗축제'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 김민성 기자

B&F
CAFE



학생 모두가 '행복한' 기숙사, 행복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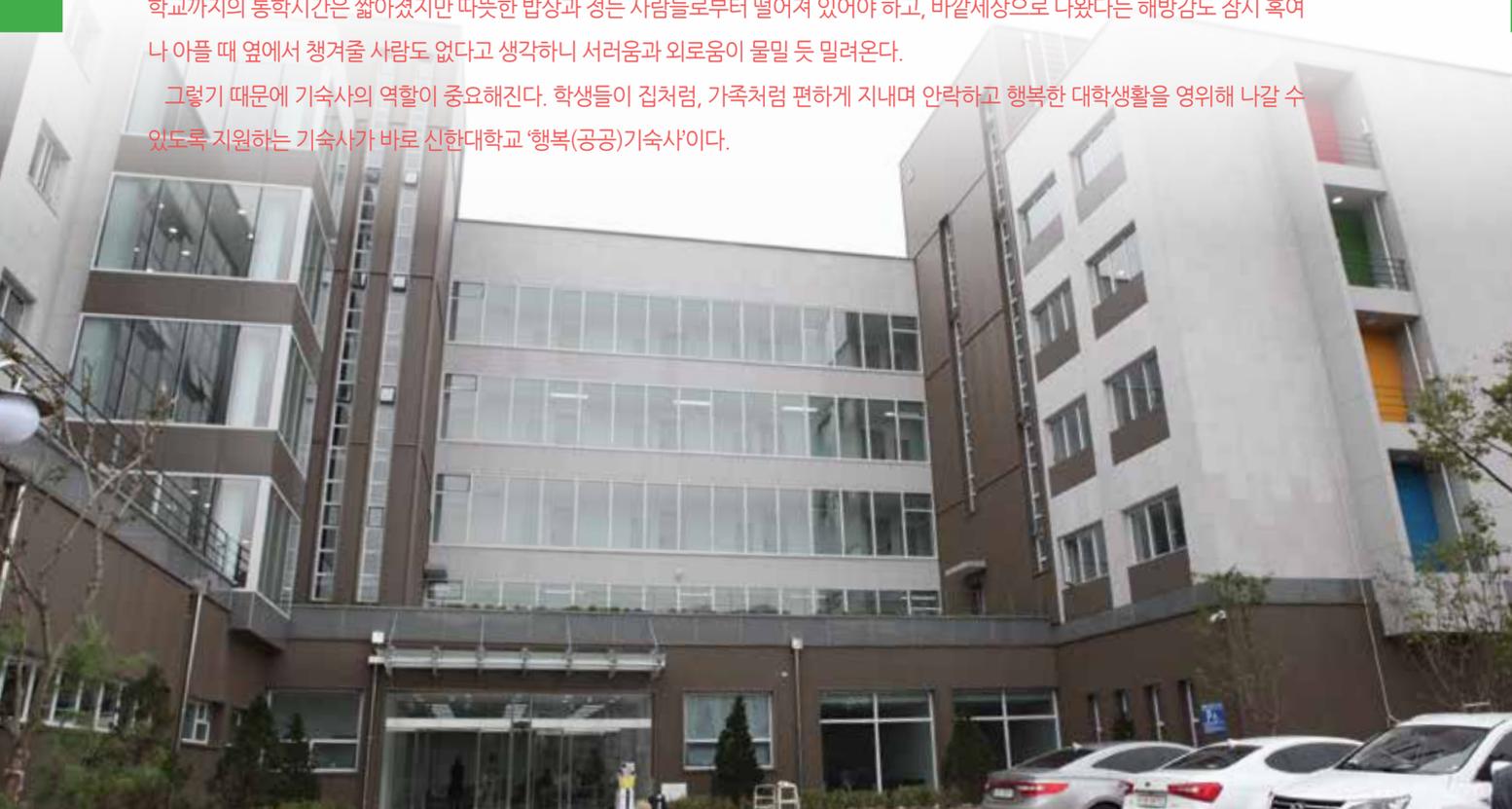
카르멜1관(의정부) · 카르멜3관(동두천) 행정실장 인터뷰
행복기숙사(카르멜1) 설문조사... 10명 중 7명 '매우 만족'으로 나타나
이수진 카르멜3관 실장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할 것"
박중현(간호학과 1학년/카르멜3) 학생 "최신시설과 넓은 방이 장점"

“통학하는데 왕복 4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셔틀과 환승 시간 때문에 3시간 전에는 집에서 나와야 했죠. 자취나 기숙사가 아니면 힘들
겠더라고요.”

1년 6개월 차 기숙사생인 박은진(에너지환경공학과 4학년) 학생은 기숙사 입사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가 먼 탓에 그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기숙사를 선택했다. 안지혜(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 역시 장거리 통학으로 기숙사 생활을 택
했다. 그녀는 “학교와 가깝다는 것”을 기숙사 생활의 최고의 장점으로 들었다.

짧은 통학시간은 대학생들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통학시간이 짧아졌다고 기숙사 생활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갓 성인
이 되어 익숙한 보급자리와 매일 반갑게 맞아주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마주한 바깥세상은 설레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막막하기도 하다.
학교까지의 통학시간은 짧아졌지만 따뜻한 밥상과 경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고, 바깥세상으로 나왔다는 해방감도 잠시 혹은
나 아플 때 옆에서 챙겨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니 서러움과 외로움이 물밀 듯 밀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학생들이 집처럼,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며 안락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숙사가 바로 신한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이다.



■ 카르멜1(의정부) “만족도 100점 만점에 90점”

행복기숙사는 집을 떠나 공부를 해야 하지만 기숙사 공간 부족으로
민자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하숙과 자취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여 지은 공
공기숙사이다.

공공기금 59억 원 등 총 65억 원을 들여 지은 카르멜1(의정부) 기숙
사는 총 100실, 196명 수용 규모의 2인 1실로 시공되어 4인 1실이였
던 기존 기숙사보다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체력단련실, 시청
각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열람실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관련시설과
충별 남녀 학생휴게실 등 최신식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어져있다.
망월사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울 등 외부로 나가기 좋
은 교통 편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쾌적한 시설, 교통 편의성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보안과 안
전이다. 지난해 모 대학에서 있었던 성폭행 시도 사건처럼 강력범죄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
에 문상길 카르멜1관 행정실장은 “출입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출입
제한 시간을 만들어 새벽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화된 보안정책을 설명했다. 비상문이나 완강
기, 소방기구 등 화재나 지진 같은 재해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 시스
템도 잘 구축되어 있다. 문 실장은 “지금은 출입문이 잠겨 있지만 화
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숙사가 설비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기숙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문상길 실장

은 “초창기에는 신생기숙사인 탓에 정확한 체계가 없었고, 그에 따
라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지금은 시스템도 많이 갖춰져
있어 현재는 100점 만점 중 90점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학생들이 기숙사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위로 기숙사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기숙사 이용 만족도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전원이
‘(매우)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숙사 내 편의시설 중에서 사용하기에 가
장 만족스러운 편의시설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세탁실, 휴게실,
헬스장, 세미나실 순으로 만족도 순위가 나타났다.

학생들의 불만사항도 잘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벌점
제도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장용락(사회복지학과 2학
년) 학생은 카르멜1 기숙사의 장점으로 깨끗한 시설뿐만 아니라 “개
인 시간과 학생 편의 보장”을 꼽았다. 윤지민(방사선학과 3학년) 학
생은 “시험기간에 간식 행사를 진행하고 실장님과 사감님이 친절하
다”고 답했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사용인원에 비해 작은 냉장고를 불만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문 실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큰 냉장고로 교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카르멜3(동두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책임지겠다”

동두천캠퍼스(2캠퍼스)에도 행복기숙사(카르멜3관)가 있다. 카르멜3 기숙사는 (주)계성건설이 시공을 맡아 간호대학 건물 3층~5층을 증축해 지었다. 카르멜3관도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숙사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카르멜1관과 비슷한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동시에 카르멜1관의 불만사항이었던 작은 냉장고 대신 카르멜3관은 700리터 대형 양문형 냉장고를 채택했다.

최고의 보안 시스템도 자랑한다. 이수진 카르멜3관 행정실장은 “남여 기숙사 출입구가 다르고 본인 카드키가 아니면 인식 자체가 되지 않아 방 안 전기 사용이나 출입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그 덕분에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을 증축한 기숙사답게 1층 기숙사 관리실에 응급키트를 구비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한 응급처

치가 가능하고, 24시간 사감과 경비가 교대로 근무하는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안전도를 높였다.

하지만 시설이나 체계가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라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사항도 적지 않았다. 김진희(에너지환경공학과 2학년) 학생은 공간이 넓고 냉장고가 큰 점을 장점으로 들었지만 “식당이 없어 식사를 챙기기 어렵고 새집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종현(간호학과 1학년) 학생은 “넓은 방과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 묻고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는 행정실 직원이 좋다”고 했지만 그 역시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같은 간호학과 1학년 오정민 학생은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기숙사 입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5.7/10'로 집계되었다.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왜 그런가 보니 약취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실 내 헬스기구 미설치 문제와 4층 세탁실에

세탁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4층 여학생들이 3층에 내려와 빨래를 해야 하는 고충들도 있었다. 이에 이수진 실장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공기청정기와 하수구 트랩을 각 방에 설치하고, 운동기구는 구매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식당도 현재 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깨끗하고 깔끔한 기숙사를 유지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을 이은 이 실장은 “저수조 청소와 함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소독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신규 기숙사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불만사항들도 있지만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이 신경 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듯 말했다.

문상길(카르멜1)·이수진(카르멜3) 행정실장은 행복기숙사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 소속으로 기숙사 관장 보좌 및 행정, 운영, 자금 운용, 계약 업무 체결, 행사 진행 등 행복기숙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담당하고 있다. 행정실에는 행정실장을 보좌하는 근로학생도 있다.

개관 초기라 아직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학생

들과 기숙사 관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갈 행복기숙사. 문자 그대로 모두가 행복한 기숙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신대현 기자





이해와 포용으로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시대를 앞서가다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시대... 신한대학교의 국제교류 전략 전국 대학 유일 미군부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해 높은 만족도 보여 전체 외국인 유학생 684명, 베트남 유학생 44%로 가장 높아 최란 필리핀 국립대학 교환학생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응원티리엔 외국인 유학생 “유학은 두려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험” 이대홍 국제교류처 처장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자세 필요”

봄내음으로 가득 찬 캠퍼스 안은 눈부시도록 화사했다. 연초록 새싹들이 돌아나고 다양각색의 꽃망울이 터진 봄의 캠퍼스는 젊음과 생동으로 가득 찼다. 활기찬 학생들의 마음은 새로운 학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이런 분위기는 어느 대학 캠퍼스나 비슷했지만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사뭇 다른 점도 있다.

요즘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주변의 낯선 언어들을 문득 느낄 수 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귀로 들어온다. 생김새도 제각기이다. 허잡을 쓴 여학생, 눈동자 색깔과 피부색이 다른 학생들이 스쳐 지나간다. 예전 같았으면 적응이 안 되고, 지나가다 한 번씩 돌아봤을 텐데 이제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KESS(교육통계서비스)의 ‘2018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4년까지 8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9만 1천여 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4만 2205명을 기록했다.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학위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만 따져도 8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중국인이 6만 8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7,061명), 몽골(6,768명), 일본(3,977명), 미국(2,7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신국가는 181개 나라로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별로 보면 본교 기준 경희대(5,778명),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한양대(3,913명) 등의 순으로 유학생이 많았고, 서울에만 6만 1천여 명이 있다. 계열별로는 사회계열(883,826명)과 공학계열(877,507명)이 제일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이 점점 늘고,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처들이 마련되고 있다.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 지원센터가 생겨나고, 정부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을 운영 중이다.

반대로,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인 유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 교육부의 ‘2017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한국인 유학생 수가 꾸준히 하락세로 접어들다 2015년부터 다시 늘어 2017년에는 23만 982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봤을 때 어학연수를 통틀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13만 4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미(69,835명)와 유럽(34,110명)이 그 뒤를 이었다. 그중에서 국가별 비율을 봤을 때 중국(30.5%), 미국(25.4%), 호주(7%), 일본(6.4%), 영국(4.6%)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국제화 지수를 올리기 위해 해외 교환학생을 유치하고, 각 대학에서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국제화 지수는 외국인 교환학생·교수의 유치율과 출신국의 다양성, 전공과목의 영어 강의 비중 등에 따라서 책정된다.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시대, 신한대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현재 필리핀 국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있는 두 명의 학생과 미디어언론학과에서 전공수업을 들으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이대홍 국제교류처 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필리핀 국립대학(유피대) 교환학생 최란·천재민 학생 인터뷰

“버킷리스트에 ‘교환학생 가기’가 항상 포함돼 있었어요. 작은 꿈이자 로망이었죠.”

현재 필리핀 국립대학교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통칭 유피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최란(미디



어언론학과 4학년) 학생이 전자우편을 통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버킷리스트를 이뤘다는 그녀는 유피대가 한국보다 학기를 두 달이나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바쁘게 개강 준비를 했다. 같은 날에 도착한 다른 유피대 교환학생 천재민(글로벌관광경영학과 3학년) 학생은 군 제대 후 2학년을 마치고 유학길에 올랐다.

유피대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대학이다. 그리고 천재민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1등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가 아닌,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며 같이 1등을 향해 나아가는 대학”이다. 대부분의 수업방식도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토론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업방식 때문에 두 학생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란 학생은 “4학년이라 이 학교의 거의 모든 학생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생각은 오히려 더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타인을 배려하는 수업방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든 것처럼 겸손해 했다.

그러나 익숙한 집과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낯선 타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두려운 것이었다.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도 없고, 한국어 대신 영어로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최란 학생 역시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부모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많은 나라를 여행해라.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넓어진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 꼭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현지에 적응하는데 있어 한류도 큰 역할을 했다. 최란 학생은 “필리핀에서 K 드라마와 K-pop 모두 인기가 대단하다”며 “그래서인지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줘 항상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영어 회화에도 많이 신경 썼다. 천재민 학생은 “영어가 안되면 일상생활이 곤란하니까 미드나 외국영화를 보면서 회화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교환학생의 장점은 확실했다. 둘은 당연하다는 듯 영어 실력 향상을 들었다. 처음 둘은 외국인이 말을 걸면 당황부터 했고 무슨 말인지 해석부터 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영어가 들어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다”며 놀라워했다. 과제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숙적이거나 다름없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둘에게 과제

는 좋은 배움의 기회로 여겨진다. 최란 학생은 “글을 쓰는 과제가 많아서 처음에는 번역기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번역기의 도움 없이도 혼자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며 “과제를 끝내고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장점은 배려심이 든다는 것이다. 필리핀 학생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온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천재민 학생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다른 문화를 배려하는 마음이 늘고, 새롭게 배우는 것이 정말 많다”며 자신의 성장을 놀라워했다.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식습관이나 성격이 바뀌기도 했다. 천재민 학생은 필리핀 음식이 입맛에 맞아서 괜찮았지만 최란 학생은 그렇지 못했다. 탄산음료를 싫어하는 그녀도 고기류가 많은 필리핀 음식 문화 때문에 느끼할 속을 달래고자 탄산음료를 즐기기 시작했다. 급한 성격도 여유로운 필리핀 사람들의 성격에 저절로 맞춰졌다. 최란 학생은 “여유로운 일처리 때문에 비자 신청과 여권 수령까지 두 달이 걸렸고,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필리핀 시간’이라는 게 있어 약속시간보다 30분 늦게 온다”고 말했다. “여전히 항상 기다리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고 덧붙인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또한 매일이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란 학생은 “기숙사에 적응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한다. 잠에 들면 잘 깨지 않는다는 그녀도 한 시간마다 깨는 것을 반복해 수면유도제 구매를 고민했었고, 천재민 학생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보고 싶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한다.

천재민 학생은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



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처음 그도 준비가 부족한데 가도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준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신 있게 신청해서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란 학생도 “처음에는 걱정도 많아 신청하는 것을 미뤘었지만 여기에 오니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며 오히려 늦게 온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그녀는 교환학생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에게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빨리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기자의 질문에 두 학생은 항상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친구, 교환학생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학교와 국제교류처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유포대는 5월 23일에 한 학기가 끝나는데, 두 학생 모두 “여기 생활에 적응하니 지금은 너무 좋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한 학기 더 신청해서 공부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교류처는 4월 1일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다목적1실에서 중국어권·영어권 국제교류 프로그램 전체 설명회를 가졌다. 지원자 접수 기간은 4월 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 발표는 6월말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47명(영어권 9명·중국어권 38명)의 학생이 교환학생·파견학생으로 가있다. 국제교류처 관계자는 “출국해 수업을 이수하고 돌아와서 학점취득 신청서와 귀국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된다”며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 응원티리엔 외국인 유학생 “유학은 두려웠지만 새로운 시작...”

캠퍼스 곳곳에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모여들어 대화하고 함께 거니는 모습은 더 이상 이질적이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다가온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 대학에 진학하는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들도 부푼 소망과 꿈을 안고 한국을 찾는다. 그런 점에서 인종과 국적을 떠나 공통된 모습 같다.

베트남에서 온 응원티리엔(28세, 미디어언론학과 4학년)씨도 외국인이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학생’이었다. 리엔 학생은 2016년 6월에 한국에 와 신한대에서 공부한지는 1년 반 되었다. 한국에서 배운지

2년 밖에 안 된 그녀는 한국어로 말하는 게 아직 서툴렀다. 하지만 분명한 발음과 어조로 말하려는 모습에서 ‘배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보내는 20대의 유학생들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리엔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리엔 학생의 유학계기는 ‘청춘의 뒤늦은 아쉬움’이었다. 그녀는 “25살에 청춘을 지루하게 끝낼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유학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지만 정말 딱 한 번 일생에서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어가 재밌게 느껴졌던 것도 한국유학을 선택한 이유였다. 리엔 학생은 처음에 서울시립대 어학당에서 공부하다 미디어를 전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학과에서 오는 편입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한대를 선택했다. “신한대가 저를 선택했어”라고 말한 그녀는 “교수님들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친구들도 친절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다닌다”고 말했다.

리엔 학생도, 그녀의 친구들도 “한국 유학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한다. “한국의 사계절을 다 좋아한다”는 그녀는 “완전히 낯선 나라에서 지낸다는 것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흥분에 들떴다”며 “본인의 강점과 함께 한계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유학생들의 장점을 소개했다.



하지만 첫 유학생들이 마냥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언어의 장벽이었다. 리엔 학생은 “언어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도 못 시키고 지하철을 탈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영어 전용 수업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한국어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반적인 대화라도 외국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대화에서 종종 제외되기도 한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도 큰 고민거리였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말한 그녀는 “하숙집의 밥과 김치로만 몇 주 동안 먹은 적이 있다”며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리엔 학생은 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젊음이란 기회를 그냥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부에 부담 갖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는 셈 처다 양한 문화와 인생을 체험하려 한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 이대홍 국제교류처 처장 “학생들이 꿈과 용기로 부딪치는 자세 가졌으면…”

국제교류처는 국제교류센터와 국제어학센터로 나뉘어 외국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 국제교류센터는 해외대학과의 교환학생 초청 및 파견, MOU 체결·관리, 문화 교류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국제어학센터는 어학특강 프로그램을 개설해 각종 언어 능력평가를 운영·담당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교류처의 프로그램 중 몇 개를 소개하자면, 전국 대학 중 신한대학교만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미군부대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미2사단 내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며 영어와 직무 능력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수료 시 주한미군 사령관 명의 수료증 발급과 전공선택 15학점 인정,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특히 1기 2명, 4기 1명의 학생이 미2사단에 취업하는 등 좋은 결실을 맺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원활한 교내 적응과 학생들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밤’ 프로그램, 한국어 활용 및 한국문화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외부 현장체험학습 등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미 트로이(TROY) 대학, 러시아 부랴트 국립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과의 꾸준한 교류협력 체결도 신한대의 국제화 전략 중 하나다. 몽골에는 바이오생명과학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명과학연구센터도 개소했다.

이러한 신한대의 국제화 전략과 국제교류처의 부단한 노력 덕택에 현재 신한대에는 총 684명(학부생 324명·어학연수생 282명·교환학생 14명·대학원생 64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다. 국제교류처의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이 301명(남 158명·여 143명)으로 제일 많았고, 몽골(145명), 중국(136명), 우즈베키스탄(69명), 러시아(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대홍 국제교류 처장은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선호도를 조사해보니 일본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 일본 대학과의 국제교류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홍 처장은 신한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의 핵심이 “다양한 교양과목 개설과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한다. 또한 유학생은 일반 학생과 달리 절대평가제가 적용되고, 외국인 학생이 30명 이상인 학과는 외국인 학생 반을 개설해 별도 운영하게 하고 있다. 유학 경험이 있는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전담지도제’ 도입은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게 하는데 한몫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듣기 위해 외국인 학생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 처장은 “우리의 역할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번 축제 때 외국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반대로 한국 학생이 외국인 학생과 교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이대홍 처장은 “이해하고, 포용하고, 접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하고 친구처럼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겁부터 먹지 말고 먼저 나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처장은 “학생들이 여러 경험들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꿈과 용기로 부딪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세계는 넓어지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가지각색이며, 반대로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겁부터 먹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하는 것. 나아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친구처럼 다가가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길을 알고 있지만 나아가기를 망설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신대현 기자



공공행정학과 황보상원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도로명주소 연구 공로 인정받아

공공행정학과와 토지행정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황보상원 교수(이하 황보 교수)는 30년 전 행정안전부 내무부에서 근무할 때부터 도로명주소 정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꾸준히 도로명주소 연구에 몰두한 끝에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황보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에서 상을 받은 것 같다.”는 수상소감을 표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도로명 정책과 함께해 온 만큼, 황보 교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 이어 그는 도로명주소의 장점을 기존의 지번 주소와 비교하며 쉽게 설명했다. 먼저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해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를 표기하는 제도이다. 전에 있었던 지번 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지번으로 주소를 작성했던 것인데, 전 세계 300개 국가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지번 주소를 사용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로의 변화가 세계적 보편화에 발맞춰가는 움직임임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신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지번 주소는 불규칙적이어서 주소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도로명주소가 해결해 경제, 생활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을 보였다. 지번 주소는 필지(筆地)에 번호



를 붙였기 때문에 위치 예측이 어렵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 오른쪽에 홀수, 왼쪽에 짝수로 순차적인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 입구에서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 건물이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소가 규칙적인 배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류 이동이 편해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체계적인 도로명주소의 사용으로 길 찾기가 수월해지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생활적 측면에서의 장점 역시 주목할만하다. 황보 교수는 길 찾기도 친근하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한로 50번지를 찾아가갈 때, 도로 첫 번째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25번째 건물에 해당하고, 건물 한 칸의 거리가 20미터이므로 20x25=450미터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전국에 도로명주소가 법적으로 주소화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도의 과정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가 적용된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토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지적 정책 분야에서의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줄 예정이다. 황보 교수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연구와 병행하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된다면 토지분쟁 소송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자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중앙도로주소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보 교수는 공공행정학과 학생들의 큰 비전을 제시했다. 도로명주소와 같은 토지에 관련된 정책이 발전됨에 따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토지 행정의 전문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격려하며, 자신도 학생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 국가에서 원래 있던 제도를 탈바꿈해 정착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면서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신한대학교의 위상을 높인 황보상원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 한규현 기자



패션디자인학과 김서룡 교수, 디자이너로서의 인간 김서룡을 들여다보다.

김서룡 교수는 서양화과를 졸업해서 전업 작가로 15년 이상 활동하다가 40세가 다 된 나이에 패션을 시작했다. 98년도에 '김서룡 옴므 Kimseoryong Homme' 브랜드를 냈고 40회 이상 서울패션위크 쇼(show)장을 빛내며 디자이너로서의 꾸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교수직도 맡고 있는 김서룡 교수는 한국의 독보적인 남성복 디자이너다.

[서양화가에서 패션디자이너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옷을 리폼해 입다가 패턴, 양장, 재단 책을 사서 취미로 공부를 시작한 그는, 95년도에 웨딩드레스를 만들어달라는 친구의 부탁이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패션을 시작하게 되었다. 볼륨 있는 웨딩드레스와는 다른,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던 슬림한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레지옹 마리에'라는 웨딩드레스 가게도 차렸다. 자연스럽게 텍시도도 만들면서 남성복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김서룡만의 여섯 가지 디자인 철칙]

그에게는 25년째 지키고 있는 그만의 디자인 철칙이 있다. 첫째, 직접 만든다. 옷을 취미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재단사의 몫인 패턴 뜨는 일을 혼자 하고 있다.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 원하는 옷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실루엣이 좋은 옷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원하는 사이즈는 맞춰주지만 원하는 옷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김서룡 옴므'는 슈트를 디자인하고 옷을 맞추지만, 양복점은 아니다. 디자이너의 관점이 들어간 옷이기 때문이다. 내가 디자인한 옷이 마음에 들면 사 가면 되고 아니면 안 사면 된다. 셋째, 내가 입고 싶은 옷만 디자인한다. 넷째, 좋은 소재만 고집한

다. 그가 만드는 옷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주로 실크 소재로 작업한다. 이름 때문에 옷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디자이너로서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섯째, 원단을 직접 염색한다. 그는 희소성이 있는 옷을 디자인하고 싶기 때문에 제일 만족하는 색상과 소재의 원단을 쓴다. 여섯째, 가치 있는 옷만 만든다. 적은 수량이지만 특별하고 가치 있는 옷을 만들자는 생각이다.

[패션쇼에 새로움을 더하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패션쇼의 이미지는 트렌디한 음악과 함께 어두운 실내에 강한 핀 조명이 내리쬐며 모델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김서룡의 패션쇼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쇼 현장에서 배경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갤러리나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이 쇼(show)장이 되기도 한다. 관객들은 연주회장을 찾았고, 갤러리를 찾았고, 테니스장의 관중이 되어 김서룡의 패션을 감상했다. 20년 동안 서울패션위크에 서온 김서룡은 같은 공간이 지켜줬다고 말했다. 정신없는 시작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을 새 없이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 것에 아쉬움이 남아 다른 공간에서 쇼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매번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인데,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 쓸쓸한 재미도 있고, 도전 그 자체라며 일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서울패션위크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패션쇼를 하면 대중들로부터 잊혀질까 봐 초조함을 부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고 나니 오히려 브랜드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더 굳건해지는 자신의 의지를 느꼈다고 한다.

[삶에서 하지 않는 것들]

김서룡은 삶에서 하지 않는 것들, 하지 않을 것들로 세 가지를 꼽았다. 바로 결혼, 독주, 욕심이다. 특히 그는 "결혼하지 않은 것은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며 편안함을 드러냈다. 혼자 욕심부리지 않고 재밌게 살다 가는 것, 덜 벌어도 자신을 재밌게 놔두면서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또 그는 나이에 맞는 역할을 다 하고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영역을 잘 다듬어 가는 게 일이라며, 독주에서 벗어나 키워온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예정임을 밝혔다. 나이가 들면서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씩 놓을 줄 알게 되면서 욕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의 인생에 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음악 듣고 책 읽는 시간들이 일의 비중보다 더 많이 차지해야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상화가 된 EBS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까지는 아니어도 영어 공부를 매일 하고 있다는 그는 영어 어플 중 제일 잘 가르치는 건 EBS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왕초보 영어 강의를 듣는다. 누구의 도움 없이 여행다닐 때 영어를 못해서 길을 잃는 노인은 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영어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델들도 외국 나가면 옷을 입어라, 벗어라 등의 기본적인 말들을 알아들어야 하니까 EBS 영어강의를 추천하기도 한다.

[디자이너의 취미]

그는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매 순간을 찍으려고 노력한다. 학교에서 사진학을 부전공으로 배운 그는 사진작가와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미지를 잡아내는 사진은 잘 찍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 언제 찍었는지 모르게 찍어서 누가 좋아하면 주고 좋은 사진은 갖고 있으며, 사진을 잘 찍지 못해도 부담없이 자주 찍는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 그의 인스타그램 사진들도 대부분 그가 찍은 사진이다. 모델을 캐스팅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이너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프로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서 디자이너에게 호감이 가고 어필할 수 있는 모델들의 프로필 사진도 종종 찍어준다고 한다. 시간이 되면 전부터 하고 싶었던 록북 촬영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목표 : 흘러가는 대로 흐르기]

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니 편했다고 한다. 실수한 사람도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되던 일도 안 되게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에겐 스트레스 안 받고 수월하고 편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일한다. 앞으로 될 것이 없으니까 별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 했던 만큼 하면 되니까 조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 한규현 기자



새롭게 태어난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

장학금액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증대돼...
'생활비 지원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전액장학금 대상자도 신청 가능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는 기존에도 존재해왔지만 여러 한계들이 있었다. 너무 높은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기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부재 등이었다. 신한대학교 학생지원팀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를 개편했다.

신한대학교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의 기본운영사항 중 장학금액은 1점에 1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장학금 출금은 최소 300점부터 최대 2000점까지 가능하다. 최소 점수인 300점을 장학금으로 환산하면 30만원이고, 최대 점수인 2000점을 장학금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인 셈이다.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는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기존에 있던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매년 2월을 기준으로 기존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며, 1년마다 출금이 필수라는 점이다. 출금기간은 연간 2회로 정해진다. (1학기=7월 말/2학기=1월 말)

신청방법은 신한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역량관리'에 들어간 후 '프로그램 및 행사참여' 및 '경력조회 및 등록'에서 개별 등록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종합정보시스템 내 행사참여와 경력조회를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다. 장학금의 성격은 '생활비성 장학금'에 더 가깝다. 이중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액장학금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신청 대상자는 당해 학기 재학생만 가능하며, 중도 학적변동 발생 시 해당 장학금은 신청이 불가하다. (휴학, 자퇴, 제적 등) 복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마일리지 장학금도 신청제한이 있다. 첫 번째는 재학 중 학적변동자이다. 학기 중 중도 휴학(군 휴학 포함), 제적 등 학적 변동 시 신청이 불가하다. 두 번째는 운영기간 내 취득하지 못한 항목이다. 이전학기 취득자격증은 다음 학기에 신청이 불가하다. 단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취득사항은 다음 학기 운영기간에 반영된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허위신청은 금지된다. 3회 이상 경고 누적 시 신청자격이 영구 제명된다. 네 번째는 학칙 및 재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 및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이 제한된다.

3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1학기 마일리지 운영 및 개별등록 기간이며 7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부서별 신청내역 처리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개별신청은 불가하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1학기 마일리지 출금 신청기간이며, 8월 1일부터 23일까지는 1학기 지급 대상자 검토 및 마일리지 장학금이 지급된다. 8월 26일부터 다음해 1월 10일까지는 2학기 마일리지 운영 및 개별등록 기간이다. 2020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부서별 신청내역 처리기간이며 14일부터 22일까지는 2학기 마일리지 출금 신청기간이다. 23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2학기 지급 대상자 검토 및 마일리지 장학금이 지급되며 점수가 초기화된다.

어학 및 사회봉사 마일리지 프로세스는 이렇다. 학생이 어학 및 사회봉사를 취득한 후, 마일리지와 경력개발을 개인적으로 신청한다. 그 후 사회봉사 및 어학점수를 입력하면 담당 부서의 부서담당자가 승인을 내린다. 그 후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되며, 학생은 적립 마일리지

출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지원팀에서 장학금 지급 승인을 내리면 마일리지 장학금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출금 신청 후 장학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일반 행사 참여 마일리지 프로세스는 담당부서에서 교내 마일리지 행사를 공지하면, 학생이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한다. 담당부서에서 행사참여 여부를 승인하면,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후는 어학 및 사회봉사 마일리지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진행되어 마일리지 장학금이 지급된다. 학생포상 마일리지 프로세스도 이하 동일하다. 프로그램별로 지급되는 마일리지 포인트 중 TOEIC은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은 60점, 600점 이상 700점 미만은 80점, 700점 이상 750점 미만은 100점, 750점 이상 800점 미만은 150점, 800점 이상 850점 미만은 200점, 850점 이상은 250점이 지급된다.

종합정보시스템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이렇다. 먼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고(최초 1회) '장학메뉴'를 클릭한다. 프로그램 담당 부서 공지 확인 후 해당 마일리지와 경력개발을 신청한다. 봉사 마일리지 등록 시 사회봉사 탭 선택 후 취득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어학 마일리지 등록 시 어학능력 탭 선택 후 취득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저장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한다. 경진대회, 특강 및 일반 행사를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취득 가능하며, 프로그램 행사 참여 클릭 후 '진행 중'을 선택하여 행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준 참가자를 모집하는 행사가 있을 시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된다.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양식다운'을 누르면 신청서 다운이 가능하다.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신청 시 좌측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 후 하단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시간표 및 기타 선택사항을 체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변경 후 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장학 홈 '마일리지 장

학금 신청'을 클릭한 후 해당학기 마일리지 장학금 신청내역 및 사용가능 마일리지 점수 확인 후 신청마일리지 칸에 출금 희망 포인트를 입력한다. 신청 마일리지와 잔여 마일리지 최종확인 후에 신청한다.(최소 300점/ 최대 2000점) 신청완료 후 '신청 중 마일리지'에서 최종 확인한다. 장학금 지급은 출금신청 마감일로부터 3-4주 정도가 소요된다.

마일리지장학제도의 기준완화를 정책으로 걸었던 2대 총학생회 들봄의 교육정책국장 박은비 학생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기회를 더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며 "마일리지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바란다."고 전했다

☎ 최수민 기자



신한대학교의 또 다른 야심작, '단과대학'

글로벌비즈니스 단과대 학생회장을 만나다

5년간 단과대가 아닌 각 학과의 학생회만 몇몇 존재했던 신한대학교에 단과대 학생회가 생겼다. 단과대는 공공행정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 언론학과가 속해있는 <사회과학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국제어학과가 속해있는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식품조리과학부(식품 영양/외식조리/바이오 식품산업 전공),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뷰티헬스 전공, 안경광학전공이 속해있는 <바이오생태 보건대학>, 기계자동차 융합공학과,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IT융합공학부(전자공학/컴퓨터공학 전공), 섬유소재공학과가 속해있는 <과학기술융합대학>, <간호대학>, 디자인학부(산업/패션/공간 디자인 전공), 공연예술학부(공연예술/태권도교육융합 전공), 모델콘텐츠 전공이 속해있는 <디자인예술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2018년 2학기에 각 단과대 건물에서 진행되었으며 후보들은 막상막하의 선거 공약을 내놓았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후보들은 높은 경쟁률에 떨어야 했고, 당선된 후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단과대학 중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오용택 학생회장(글로벌 통상 경영학과 15학번)을 만나보았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속한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학생회를 소개했다. “저희 단과대의 학생회 이름은 ‘라운’이에요. 순우리말로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학우분들이 즐겁게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과대학의 슬로건은 ‘싱글빙글’이에요. 신나는 글로벌, 반가운 글로벌의 줄임말이구요.”

“저는 경험주의자예요.”



오용택 학생회장은 바로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학생회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제가 작년 2학기에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어요. 입대 전에는 총학생회도, 단과대도 없었어요. 복학을 해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흥미가 생겼어요. 마침 학생회장의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지 하나로 맨땅에 헤딩했죠.” 당선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할 때도 경험을 중요시하는 오용택 학생회장만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다. “좋더라고요. 선거에 나서기로 결

심한 날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겨울방학이 없었던 건 기본이고 매일 밤을 새며 학교에 살았어요. 단과대 학생회가 처음 생기자 보니 인수인계받은 내용도 없었고 휴학을 하기 전과 지금의 학교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공부를 해야 했어요. 1캠(의정부 캠퍼스), 2캠(동두천 캠퍼스)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또 어떤 점이 좋은지 직접 경험하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제가 공부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학우분들이 알아주신 것 같았어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커요. 학교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학생회장을 하면서 얻어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말도 잘하게 됐고 리더로서의 역량도 높아졌어요.”

계속되는 질문에도 오용택 학생회장은 성의껏 대답했다.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빠짐없이 읊었다.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세 개의 학과를 모두 공부하고 나니 1캠 에베에셀관과 강의동을 사용하는 글로벌관광경영학과와 글로벌통상경영학과에 비해 2캠의 국제어학과와 복지사가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어학과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학식도 먹어보고 버스도 타 봤어요. 왜 제2캠퍼스의 환경에 대해 말이 많는지 알 것더라고요. 우선 먹을 게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학식조차 의정부 캠퍼스와 정말 비교되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식사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라면 돈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캠의 학식 측 대표님과 미팅을 약속했고, 개선 중이에요. 버스 증편에 대해서도 학교와 함께 힘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받고 학장 간담회를 여는 것 등 많은 공약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단과대 통합에 힘쓰고 있어요.”

오용택 학생회장은 선거 공약중 가장 크게 밀고 있는 것이 단과대 통합이라고 했다. “지금 진행 완료된 프로그램은 단과대 연합 엠티예요. 국제어학과와 글로벌 통상경영학과는 학생회가 없었어요. 국제어학과는 비상대책위원회라도 있었지만 글로벌통상경영학과는 진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라온에서 각 학과의 학생회 자리를 대신했고, 다행히 다들 재미있게 잘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세 학과가 다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대, 3대 단과대 학생회들이 편하게 다음 엠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단과대 하나에 세 개의 학과가 속해 있는데 어떤 학과는 1캠에, 다른 학과는 2캠에 있으면 통합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단과대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엠티 때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 개의 학과가 떨어져 있다면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동등한 기준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참여율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으로 준비중이에요. 학지처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중이에요. 현재는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두 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간식 이벤트예요. 아마 준비 중인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시험기간에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학생들에게 간식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강사 초청이에요. 이것도 5월 안으로 나올 텐데, 강사를 초청하여 취업에 필요한 면접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의 지루한 강의가 아닌 이미지메이킹이나 퍼스널컬러, 그에 맞는 옷차림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될 거예요. 지금은 강사를 초청하는 단계까지 완료되었어요.”

“학내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요.”

학내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물었다. “사실 이 문제는 신한대학교의 글로벌비즈니스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의 선거임에도 직접 나서서 리더를 투표하지 않고, 어떤 이벤트에도 참여하지 않는 문화 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학생회를 더욱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용택 학생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올해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생회인 ‘라운’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학생회 ‘라운’)는 행사나 이벤트보다 건의를 받고 개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단과대 학생회가 처음 생겨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기보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차기 학생회 임원들이 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일할 생각이예요. 그래서 선거 후보 당시 내놓았던 공약이 건의와 개선이었던 것이고요.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학생들에게 단과대와 라온에 대해 알릴 거예요. 우리가 왜 필요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학생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오용택 학생회장은 함께 하는 내 진중함 태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인터뷰에 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행사를 열고 참여를 유도했을 때는 우리 단과대의 학생들을 위해 하는 내용이에요. 참여를 강요하는 일도 없을 거고, 모든 프로그램이 재미있을 거란 보장도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과대에 대한 모든 건의사항은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라운’의 이미지에 맞게 즐겁게 학교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소통이 정말 중요한 만큼, 모든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조희지 기자

패션디자인학과 신유지 교수, 정형화된 디자인을 탈피하다

자신만의 브랜드 성황리에 출시
교수와 디자이너 병행하는 삶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교수, 6년째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교수로서 자리를 지키며 훌륭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신유지 교수(이하 신 교수)를 인터뷰했다. 그녀에게서 교수의 모습부터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의 모습까지 그만의 다양한 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학생들을 위한 도전을 감행하다

신 교수는 2018년 12월 코엑스에서 열린 제 17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의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에 선정되었다. 디자인 전문가들에 의해 세부적으로 평가되는 부문에 선정되어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그는 ‘영’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라고도 말했다) 그가 바쁜 교수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직접 공모전에 참가한 것은 바로 학생들을 위해서였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실제적인 경험 후기를 주고 싶어서였기 때문인데, 이것이 처음 공모전과 박람회 관심을 두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그는 패션디자인과 14학번이 졸업을 하고 난 후,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창업이 적합하고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브랜드 출시를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이 선결 결과에 좌우하지 않고 교수로서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신 교수는 공모전을 발판삼아 학생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경험을 얻었고, 자신의 브랜드를 10만 명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 친환경 소재의 가방을 탄생시키다

먼저 “시즌마다 주로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브랜드의 특성을 기반으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즐기며 진행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가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에 출품한 작품은 ‘타이백’이라는 친환경 소재의 종이 섬유를 이용한 가방으로, 브랜드 ‘원이어퍼포먼스’와 신 교수의 브랜드 ‘블랙(BLAQK)’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한 작품이다. ‘극과 극(克果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작업의 출발점은 두 브랜드 각자의 조형언어를 가방이라는 공통된 대상에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서로의 표현방식과 철학의 다름에서 출발하여, 다른 소재가 가진 특성을 다각도에서 실험했다. 다름에서 출발하였지만 각 브랜드만의 방식으로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조형적 실험의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신 교수에게 이러한 도전은 시각적 다양성으로 새로움을 시도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얻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는 “직접 디자인, 소재, 패턴, 제작까지 모든 작업을 도맡아 진행하면서 학교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 교수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 작업이었지만 디자이너로서의 작업은 힘든 만큼 충분히 즐길만한 작업이기도 했다”며 보람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품이 하나, 둘 완성되어 갈 때 그 자체로 희열을 느끼다며 학생들이 디자이너로서 꼭 느끼길 바라는 순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브랜드를 출시하다

신 교수가 어느덧 신한대학교에 온 지 6년 차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서 있던 교수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디자이너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일상의 교수 생활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자극을 찾았고, 예전부터 준비하던 브랜드 런칭을 결정했다. 그래서 만든 브랜드가 ‘블랙(BLAQK)’이다.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추구하며 소비자나 디자이너의 취향을 동시에 간파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블랙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블랙의 목표는 브랜드에서 매 시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대에 발맞춰 그는 무엇보다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갈수록 다양화, 세분화되는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에 맞게 매 시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색다른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2019년 하반기 입점을 목표로 패션디자인과 학생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또한 준비 중이다. 신 교수는 브랜드를 통해 단순히 패션에만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의 디자인 분야를 접하는 경험에 열망을 드러냈다.

■ 패션디자인을 정의하다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냐’는 물음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소장하고 싶은 부담스럽지 않는 디자인”이라 답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패션디자인에 대한 그의 철학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패션디자인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내비쳤다. 그는 “개개인의 철학이나 컨셉, 디자인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패션디자인 분야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의 패션디자인을 책임질 패션디자이너와 학생들에게도 넓은 시각을 가지려 노력하길 바란다며 교수

로서의 면모도 잃지 않았다. 패션이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

하는 그는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분야인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낌 없는 응원을 전했다.

■ 앞으로의 행보

공모전과 브랜드 출시를 성황리에 끝낸 신 교수는 교수와 디자이너의 삶을 병행하며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브랜드의 다음 콜라보레이션은 가구업체와 함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옷에만 국한되는 패션디자인을 지양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을 기르는 경험을 많이 하려는 이유에서 가구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신 교수의 행보에 끊임 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 한규현 기자



‘스펙’으로 시작해 이제는 자발적으로... 간호학과 권순규 학우가 말하는 봉사정신

봉사, 나보다는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위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자체

학생이라면 누구나 봉사활동을 하고,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스펙’을 쌓거나 졸업 필수요건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의 봉사정신이 왜곡되었다고 할 수 없다. 바로 의도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진정한 희생정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과 권순규 학생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순규 학생은 2018년 4월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신장 기증 이식수술을 받을 정도로 효자로 알려져 있다. 위 학생은 작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주최한 2018 생명 나눔 아이디어공모전에 수술 수기(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나)를 작성하여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권순규 학우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봉사정신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어보았다.

먼저 신한특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15학번 권순규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거라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봉사’라는 의미에서 저보다 더 뛰어나고 성실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대해 주시나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바를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많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로 무슨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봉사를 했어요. 제 목표가 의료 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병원, 종합병원, 요양원 등 찾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 시설, 위치 등을 안내해드리는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처음은 ‘스펙’이었어요. 저는 남들보다는 늦게 간호학이라는 학문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니깐 나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봉사처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표했던 지점을 넘어서서까지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시하게 되었어요.

봉사를 하시면서 보람 있거나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서울 어느 한 종합병원 인공신장실에 거의 7개월을 지속적으로 나간 기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투석을 받는 특수부서였어요. 동시에 제 인생에서 병원이라는 환경에 가장 밀접하게 체험했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얼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학생이었으니까요.

비록 ‘학생’이라는 신분이었어도 방심하는 순간에 제 행동이나 말투에 환자와 병원의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늘 긴장을 했었는데요. 그 여파로 그저 묵묵히 일만 했어요. 마치 로봇처럼 말이예요. 시키는 것만 하고 물어보시는 거에만 대꾸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다음 주에 또 와? 꼭 와!”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순간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깐 따라서 하게 된 ‘봉사’라는 의미를 어찌면 그 할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봉사’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반면 봉사를 하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봉사를 나간 초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제가 다른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병원이라는 장소는 제가 아파서 진료만 보러 다녔지, 의료 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건 처음이라 엄청 긴장했었어요. 또 성격이 낮은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만나는 분들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봉사자는 그럴 시간이 필요 없이 먼저 다가가야하고, 마음을 줘야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안돼서 엄청 곤란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에게 자원봉사란 ‘○○○’이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수식어나 정의를 덧붙이게 되면 계속 살만 붙여지는 느낌이고 본연의 정의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위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자체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께 신장을 이식하셨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와 그 후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제가 쌍둥이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면, 어머니가 원래 지병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임신중독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계속 약 드시는 것을 보면서 자랐었는데 작년 초부터 약을 쓰지도 못 할 만큼 엄청 악화 되셨어요. 병원에서도 ‘투석’을 준비하라 권고했었죠. 그때 어머니가 너무나 크게 낙담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것을 보고 결심을 했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픈 것을 계속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갑자기’라기 보다는 조용히 저 혼자 다짐해왔었던 것도 있었어요.

작년 4월에 수술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지금이 딱 1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동안 어머니는 다른 사람인 듯 얼굴 화색도 좋아졌고, 활기도 넘쳐나세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기뻐요. 저도 수술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건강하구요.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봉사에 대한 권순규 학우만의 철학이 있다면?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종 꿈이 ‘선교’인데요. 종교적이라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절대 저 혼자만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고,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면 아마 현재보다 더 큰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은 어머니를 전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게 있어서 예전처럼 봉사처에 나가거나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꼭 어딜 가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야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미 모두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말이예요. 더 훌륭한 분들에 비해 저는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그는 진정한 봉사정신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이후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그의 마음은 따뜻하게 물들여졌다. 권순규 학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소탈한 봉사정신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권순규 학생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의 2019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봉사 누적시간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우수자원봉사자 선정은 평균 5~60시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권순규 학생은 봉사누적시간이 170시간이 될 정도로 평소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이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연극동아리 '세컨드 스타트' 창설 후 첫 공연

연기 비전공자들의 용기 있는 두 번째 시작, 연극동아리 "세컨드 스타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꿈들을 하나씩 담아 둔다. 그리고 그 꿈을 꾸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단순히 '어렸을 적부터 소망했던 꿈'으로만 남겨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꿈을 '어렸을 적부터 소망했던 꿈'이 아닌 '내가 이룬 꿈'으로 바꾸며 용기 있는 도전을 한 학생들이 있다. 바로 신한대학교 연극동아리 '세컨드 스타트'의 학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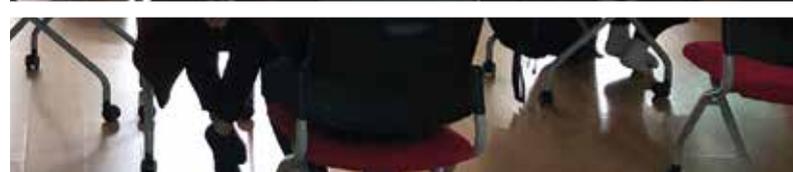
연극동아리 '세컨드 스타트'는 작년에 만들어진 신한대학교 소동아리로, 기회가 없어 연극을 배우고 싶다는 꿈만 꾸다 꿈을 현실로 만들

기 위해 모인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동아리의 이름 '세컨드 스타트'는 두 번째 시작이라는 의미로, 대학에 와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권태호 학생은 대학교 전까지 자신의 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배우의 길을 가지 못했고, 연극부를 개설해 부원들과 함께 연극을 하여 부모님에게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세컨드 스타트'를 창설했다.



'어쩌면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컨드 스타트'는 연극 동아리임에도 공연예술학과 학생이 한 명도 없다. '세컨드 스타트'의 회장인 유아교육과 15학번 권태호 학생은 "(동아리원을) 모집할 때 질문을 해봤는데 대다수가 꿈을 배우로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포기하였다. 그러나 '어쩌면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학창 시절에 무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무대에 오르고, 무대에 올랐던 적이 있는 사람은 그때의 기분을 한번 더 느끼고 싶어 지원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세컨드 스타트'의 단원들은 모두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경험이 없다. 동아리의 부회장을 맡고있는 뷰티헬스학과 황윤영 학생은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연기를 너무 못하면 연극을 보는 관객들의 집중을 흐트리는 것 같아 틈날 때마다 대본 연습을 열심히 했다"며 스스로를 기특하다 칭찬하며 웃었다.

2월 24일, '세컨드 스타트'의 첫 공연이 신한대학교 원형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권태호 학생은 "날씨는 개강전에 끝내고 싶어서 2월24일로 정하였고, 해화에서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방학기간이라 대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심 끝에 학교 원형극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며 "해화에서 대관을 하면 관객들을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며 모으려고 했지만 장소가 학교로 바뀌면서 신한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와 동아리원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관객을 모집하였다"고 했다.

권태호 학생이 동아리를 창설하면서 지키고 싶은 철칙 중 하나는 '모든 동아리원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단원들은 조를 나누어, 각자가 주연이 되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연하기로 결정했다.

1기 단원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18학번 성지운 학생은 "벚꽃엔딩 조는 처음에 나이대를 정해 기본 시나리오 뼈대로 20대를 선택했고, 기본 내용은 조원별로 20대 때 꼭 해보고 싶거나 보통 겪는 일들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 중 동아리, MT, CC(캠퍼스 커플), 군대, 공신, 직장인 등 여러 가지가 나왔고 이 주제들을 엮어 시나리오 작업

을 시작했다. 그는 "'캠퍼스 커플(CC)', '입대 후 직장이 된 여자친구'를 주제로 선택해 그 사이에서 생기는 입장 차이와 감정에 대해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자신이 속한 조의 공연을 소개했다.

그 중에서 성지윤 학생은 군인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직장인 여성 역할을 맡았다. 그는 직장인과 '공신(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여자를 일컫는 말)'의 고충으로 이별하는 아픔을 연기했다.

권태호 학생이 속해있는 조는 자작극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시나리오를 써본 경험이 없던 단원들의 글로 연극을 진행하기에는 무리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원들은 급하게 옴니버스 대본을 구해 역할을 나누어서 공연을 진행했다. 권태호 학생은 "저희 조는 한 작가가 자신이 쓸 이야기나 겪었던 이야기들을 말해주면서 시작된다. 쉽게 말해 여러 단편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각 편 마다 설명을 위해 작가가 스토리의 전반적 설명을 한 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며 자신의 조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권태호 학생이 맡은 역할은 오디션장에 자신이 연기를 잘한다고 나타난 아마추어 연기 배우역으로, 자신이 연기를 잘하는 줄 알고 오디션을 보지만 발연기로 인하여 감독은 어이없어 탈락을 시키지만 자신은 그 이유를 몰라 억울해하는 연기를 펼쳤다.

황윤영 학생의 조는 서민들의 삶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아낸 옴니버스 코미디연극 '굿닥터'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황윤영 학생의 조는 인원이 부족하여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기도 하였는데, 황윤영 학생은 '재채기의 장관부인', '치과의사의 조교', '생일선물의 여자', 그리고 벚꽃엔딩에서 조연까지 무려 1인4역을 맡았다.

첫 공연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단원들이 모두 공연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성지윤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실제 연극에서 조명을 만져본 친구 이외에는 연극 경험, 동선 짜본 경험, 조명 및 음향 만져본 경험, 시나리오 작성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몇 가지 얘기하자면 저희 조 한 명의 친구가 시나리오를 재미있게 작성해주어 그나마 덜 어려운 상태로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공연 바로 전날 원형극장에서 다른 외부 학원의 공연이 있었는데, 조명 위치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랑 부회장님 그리고 몇 명 친구들은 그저 야광스티커라도 미리 붙여 두러 간 거였는데 처음 보는 조명 위치에 당황을 금치 못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씩 다 내리서 조정하고 다시 확인하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날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아찔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공연 전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권태호 학생 또한 "시간도 부족하고 한 사람이 조명, 음향, 소품, 동선 등 여러 일을 동시에 맡아 어려웠다"며 "시작 하루 전 날에도 '우리 정말 내일 공연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태호 학생은 처음 무대인사를 하려고 혼자 무대 위에 올랐을 때를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으로 꼽았다. 권태호 학생은 "왜인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며 "눈물을 흘릴까봐 준비한 말들을 끝까지 못하고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연극이 끝난 뒤 경품 추첨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당첨됐다"며 "아버지가 경품을 받으러 나오실 때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사람들이 포옹하라고 소리쳐 주었을 때 마음 속에서 몽글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윤영 학생은 열악한 무대 환경을 공연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황윤영 학생은 "무대 뒤 공간이 너무 협소해 여러 명이 몇 시간 동안 서있기도 너무 힘들었다"며 "마이크를 준비 못해 대사 전달이 힘들었고,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연습을 충분히 못한 상태로 연극을 올려 실수가 많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신들의 연극을 통해 관객에게 작은 행복과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세컨드 스타트'는 자신들의 서툰 연기로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한다. '세컨드 스타트'의 단장 권태호 학생에게 '공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을 하자 권태호 학생은 이렇게 답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그때만큼은 무대에서 주인공입니다.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고 무대 욕심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느덧 신한대학교의 공공연한 실력파 연극동아리로 자리매김한 '세컨드 스타트'. 그들이 성공적인 첫 번째 공연을 마치고 올해 여름이 오기 전, 두 번째 공연의 막을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한 커플의 10대부터 60대까지의 연애담을 그린 이야기이다. 나이 별로 배우는 다르지만 극 중 인물은 동일하고, 각 세대마다의 연애하

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는다고 한다, 처음 공연이 코미디에 중점을 주었다면, 이번 두 번째 공연은 관객들의 공감과 웃음, 감동까지 모두 사로잡을 예정이다. 권태호 학생은 "이번 5월 말, 평일 중에 신한대학교에서 연극을 올릴 예정이다"며,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테니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노력하여 사람들에게 즐거운 연극을 보여주고 싶다는 '세컨드 스타트'.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두 번째 시작을 기대해 본다.

☞ 정윤지 기자



신한대학교 동아리 박람회

신한대학교 5대 동아리 연합회 “아리누리” 주관
다양한 참여활동과 선물 제공해 이목 끌어들였다

아리누리



3월 12일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앞에서 2019학
년도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다. 범, 시리뷰 등 10여개 동아리가 참여
한 이번 박람회는 12일과 13일 양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18
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13일 행사는 진행 중 갑작
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되었다.

동아리박람회는 신한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정례 행사 중 하나
로, 신한대학교 재학생, 특히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를 선보
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제 1회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된 2017년 당
시 동아리 연합회장 이예지(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신입생 시절 동
아리별 활동을 한눈에 비교한 후 가입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적어
서 가입에 어려움을 느껴 신입생들에게 정확한 동아리 정보를 제
공하고 참가 기회를 주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
한 바 있다.

당초 동아리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라도 일단 동아리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을 접한 뒤에는 동아리 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동아리 박람회에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었다. 선착순으로 입장한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간식 세트가 제공되었으며, 박람회에 참여한 부
스에서 제공하는 참여활동에 참가하여 도장을 모은 학생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편의점 상품권, 커피 교환권 등의 상품이 추
첨을 통해 제공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 역시 좋다. 참가 학생들은 “평소 동
아리 설명 포스터를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았는데, 단순한

포스터가 아니라 이렇게 부스를 차려서 설명해주니 흥미도 생기고
좋았다”, “포스터만으로는 그 동아리가 정확히 어떤 동아리인지 알
기 힘들었는데, 홍보 부스를 통해 설명해주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
다”, “동아리 사람들이 다들 친절해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호평을 남겼다. 특히 선물 이벤트가 평
가가 좋았다. 관심이 없던 동아리의 부스를 도장을 받기 위해 방문
했는데 생각보다 자신과 잘 맞는 것 같아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는 학생도 있었다.

동아리와 같은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가
지게 하고, 보다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준다.
또한, 졸업 이후 사회로 진출할 때에 대비한 인성 함양과 교양 습득
의 장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더욱 활발한 자
치활동을 기대해 본다.

✎ 박현규 기자



“난 이 도시가 싫어”

뮤지컬 [잭 더 리퍼]

뮤지컬 [잭 더 리퍼]는 1888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영구 미제 연쇄 살인 사건인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과 그 범주자인 ‘잭 더 리퍼’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다. 하지만 범죄를 소재로 했다고 해서 막연히 추리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잭 더 리퍼]는 비와 안개의 도시에 모인 4명의 남자들이 벌이는 군상극이며,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들의 발버둥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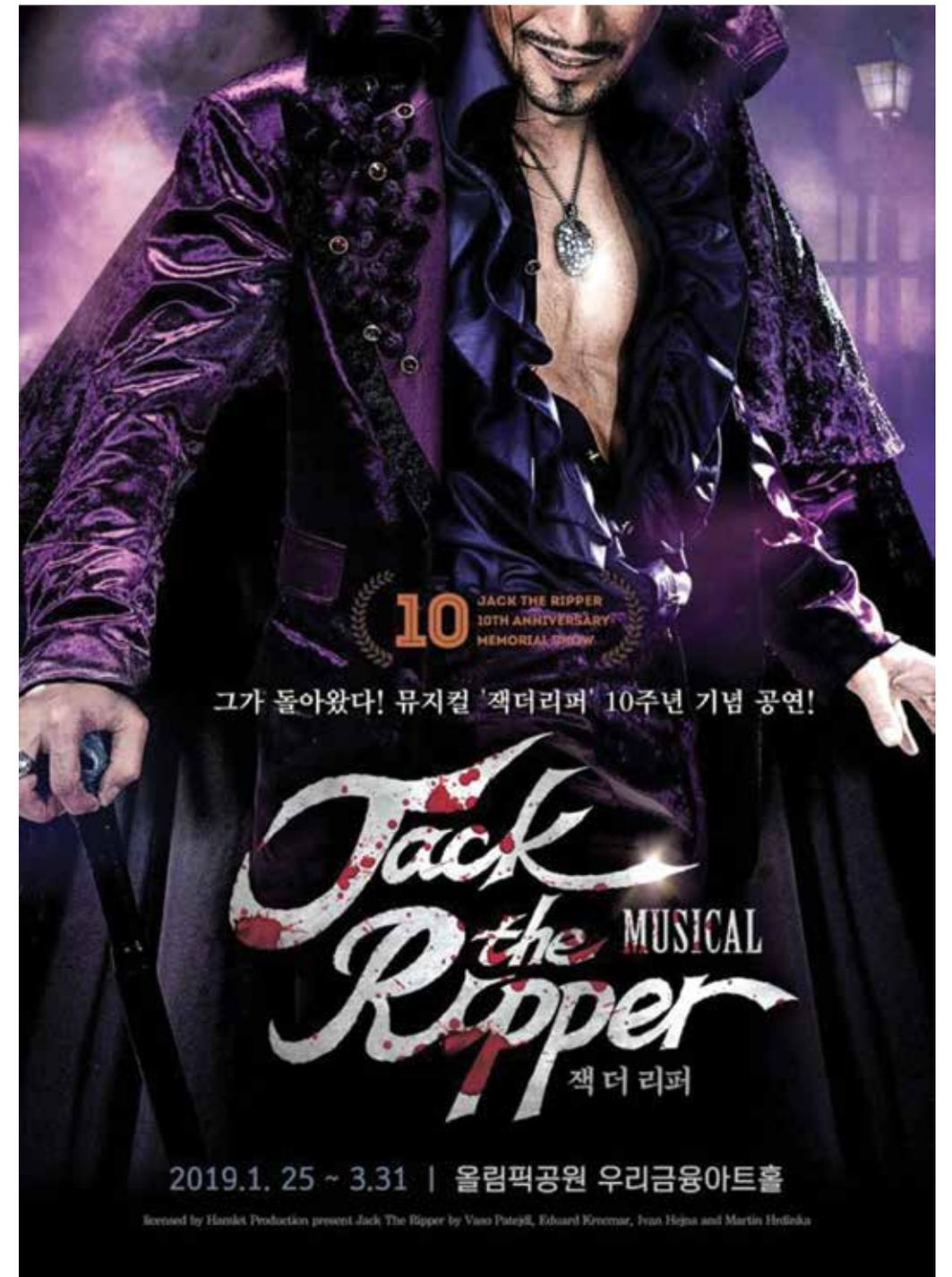
경찰 앤더슨과 의사 다니엘, 기자 먼로와 살인마 잭. 뮤지컬은 뒤틀린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망가지거나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네 남자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묘사한다. 특히 그중 다니엘은 자신이 잭 더 리퍼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증인의 역할로 등장하며, 그가 주역을 맡을 때의 대부분은 극 전체가 회상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액자식 구성을 활용한 셈이다.

잘못된 집착, 어긋난 사랑, 기이한 열망과 망가진 감성. 이 뮤지컬에 ‘경상’이란 없다.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하다못해 배경이 되는 도시 ‘런던’마저, 모두가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다. 뮤지컬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쇄살인과 황색언론을 스토리의 핵심 소재로 삼는다. 그런 만큼 흔히 뮤지컬 하면 생각하는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작품의 대표 넘버(뮤지컬의 각 노래를 일컫는 말)의 제목이 ‘이 도시가 싫어’와 ‘더 끔찍한 사건’인 것에서 유추할 수 있

듯이 어둡고, 비관적이며, 그나마 나오는 유머도 대체로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흥미로운 것은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사회비판이 현재에 다시 봐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사실이다. 다소 서글픈 일이다.

우리가 흔히 ‘뮤지컬’ 하면 떠올리는 광경과는 달리, [잭 더 리퍼]는 분명 가족들과 함께 즐기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볼만한 뮤지컬은 아니다. 그러나 연극 무대라는 한정적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무대연출과 훌륭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노래들, 그리고 심장 졸이게 하는 서스펜스에 흥미가 있다면 찾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 박현규 기자



자유를 향한 그녀들의 외침

영화 <항거 : 유관순 이야기>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개봉한 조민호 감독의 영화로, 충청남도 병천에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감옥에 투옥된 후 약 1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조민호 감독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둡고 참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온갖 고생에도 자유와 해방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의 삶을 생생하게 영화로 그려냈다. 더불어 제대로 놓지도 못했던 서대문 감옥 속 유관순과 함께했던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까지 담았다고,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재조명하여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우리에게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은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이후, 서대문 감옥에서의 유관순의 생활과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 당시 서대문 감옥에는 유관순 외에도 기생 출신 독립운동가 김향화, 아들을 잃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만석모, 옥살이 중 아이를 낳고 추운 겨울 속에서도 힘겹게 아이를 키워낸 임명애 등 함께 기억해야 할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3·1운동 1주년에도 수감 중에도 만세운동을 벌였다.

영화의 장면 표현법도 눈여겨 볼 요소들 중 하나이다. 유관순의 투옥부터 죽음까지 옥중에서의 장면은 흑백으로, 그 외에 투옥 전 가족들과의 모습은 컬러로 표현된다. 이는 유관순과 그 외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에 주목하게 하는 감독의 기획 의도가 돋보인다. 조민호 감독

“유관순 열사가 실제 당했을 고문같이 보기 힘든 장면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그날의 아픔에 눈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엔딩 크레딧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던 열사들의 사진이 유관순으로부터 시작해 쭉 나온다. 어려 보이는 열사들의 사진이 생각보다 많았고, 많이 접한 유관순의 사진도 그날따라 더 옛돼 보였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꽃 같은 열일곱 소녀였다. 요즘 같았으면 패션과 화장품 등 자신의 치장과 이성에 관심이 많았을 나이인데 그녀의 관심은 오직 조국의 독립과 자유뿐이었다.

두 다리를 다 펴지도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다리가 붓지 않기 위해 계속 동그랗게 걸어야만 했던 유관순과 수감자들.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사계절을 버티며 잔인한 고문까지 받았던 우리나라의 독립열사들. 영화는 슬픈 감동을 선사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고,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

유관순 열사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유?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대로 쓰는 것.”

☞ 김민주 수습기자



‘이방인’이 아닌 ‘우리’가 되어

알베르 카뮈 <이방인>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 모르겠다.”

세계문학의 고전 알베르 카뮈의 유작 <이방인>은 처음부터 묘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주인공 ‘뫼르소’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느끼는 감정은 책 속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어머니가 언제 사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설명이 전부이다. 뫼르소는 장례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하며 코미디영화를 보고, 바다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나른하면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만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가 살인을 하고 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의 삶도, 별생각과 의미 없이 했던 행동들 모두가 평가되고 손가락질 받는다.

살인은 평온한 바닷가에서 벌어졌다. 바닷가에서 평온하게 친구와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 아랍인 무리가 뫼르소 일행을 위협했고, 아랍인의 칼부림으로 뫼르소의 친구는 다친다. 결국 뫼르소는 친구를 칼로 찌른 아랍인을 총으로 쏜다. 친구가 죽인 이유를 물었을 때 뫼르소는 “뜨거운 태양 때문”이라며 읊조린다. 그는 이미 벌어진 살인을 부정하지도, 핑계대지도 않는다. 그리고 뫼르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와 느낌을 말한다.

살인을 저지른 후 뫼르소는 법정에 선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는다. 그가 어머니

의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장례식이 끝난 이후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정황들은 그를 냉혈한 살인자로 만들기 충분했다. 사실 뫼르소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덕적인 가치나 생각의 차이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구속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죄를 지음으로서 그가 했던 사소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

만약 뫼르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동, 즉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살인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 알베르 카뮈는 “영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소설 <이방인>을 소개했다. 책을 읽고 ‘누군가의 모든 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가끔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타인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끼워 넣는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무리에서 내몰아 서로가 서로를 ‘이방인’으로 만든다.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 더 간단하게 말해서 ‘이방인’이 아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 조유빈 수습기자



세계문학전집 266

이방인

L'Étranger

알베르 카뮈 김희영 옮김

민음사

21C SHINHAN은

SUPER - UNIVERSITY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교양인양성 Super-Edu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신한대-미2사단 미군부대 해외인턴십 5기 발대식 개최

신한대 국제교류처는 2019학년도 상반기 영어기반 해외 인턴십 5기 프로그램에 1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3월 11일 오후 3시에 경기도 동두천 'Camp Casey'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신한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 국내 용산/동두천 지역의 미군부대 내의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며 영어와 직무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은 신한대학교와 미 2사단의 60년간 지속해 온 상호 우호관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5기를 운영하고 있다.

< 김민주 수습기자 >



신한대-캄보디아 CUS 대학과 MOU 체결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2019년 2월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CUS(Cambodia University of Specialists)와 MOU를 체결했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CUS와 MOU를 통해 학생 및 교수의 교환연수를 추진하고, 공동연구 및 대학 학점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MOU에 참석한 구효진 대학원장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캄보디아 CU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민주 수습기자 >



신한대-고대안암병원 MOU

신한대학교는 2019년 1월 30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업무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신한대학교와 고대 안암병원 간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정보교환 및 인력, 시설 활용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MOU는 차후 신한대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대학교 서갑원 총장은 “이번 MOU를 통해 우리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고대병원에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졸업 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주 수습기자 >



신한대-캄보디아 Beltei 대학과 MOU 체결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2019년 2월 20일 캄보디아 Beltei International University 와 MOU를 체결했다. Beltei국제대학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캠퍼스를 보유한 대학(25개 캠퍼스)으로 캄보디아 외에도 태국, 호주 등 많은 나라에 캠퍼스를 두고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인재 양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교육 목적을 가진 Beltei 국제대학은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졸업생을 해외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 이번 MOU 또한 Beltei 국제대학의 졸업생들 중 우수한 인재의 신한대학교 IT 및 기계, 자동차 관련 석·박사 유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각 대학의 교류가 기대된다.

< 김민주 수습기자 >





신한대, 경기도 그린캠퍼스 분야 유공

신한대학교는 2019년 3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그린캠퍼스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그린캠퍼스 사업 정착 및 대학의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에너지환경공학과 황재석 교수와, 간호대학 교학팀 이영기 팀장은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회장상을, 에너지환경공학과 ENVIRO 동아리는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 본부장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조유빈 수습기자>



신한메디컬센터 의료장비 기증식

학교법인 신흥학원은 지난 3월 8일 이사회에서 이상구 원장으로부터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의료 장비 일체를 기증받아 신한대학교 경문 인근, 학교법인소유 건물에 신한 메디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안현수 이사장은 다음 달까지 신한의원과 신한약국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치과 의원과 한의원을 유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한 메디컬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빈 수습기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문화부 주최 DMZ 전시 연계프로그램 공동주관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019년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19 DMZ 전시프로그램: DMZ, 미래를 상상하다>를 공동주관한다. 이 행사는 옛 서울역사에서 탈바꿈한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전시의 연계프로그램으로 토크, 북콘서트, 시네마 토크, 포럼, 심포지움 등 여러 방식을 통해 DMZ라는 공간이 지닌 복합적인 층위를 살펴보고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DMZ라는 공간을 한반도의 전면적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어떻게 연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지식과 지혜, 경험, 안목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조유빈 수습기자>



신한대,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개최

신한대학교와 여야 국회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9년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에 대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3P' 분야별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한-메콩 협력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조유빈 수습기자 >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국내·외 석학 논문 총서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와 한반도' 발행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원장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이하 연구원)은 출범 4년을 맞아 연구 총서 제2권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와 한반도'를 발간했다. 이 책은 낯선 아일랜드 섬의 평화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숙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책은 탈분단의 길을 학문적으로 개척하고자 설립된 연구원의 지난한 노력의 또 하나의 결실이 되었다.



< 정윤지 기자 >

신한대학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과 MOU 체결

지난 3월 26일,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는 (준)다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병태)과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갑원 총장은 신한대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설립한 『신한대학교 사회적 가치 추진단』(SVCC, 단장 이현 교수)이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되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하게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 정윤지 기자 >



대학발전기금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철	교육총괄팀	윤상곤	글로벌비즈니스대학교학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수요예배
강정원	유아교육과	윤호숙	탐임상병리학과	최승구	임상병리학과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권영길	교양교육원	이광규	컴퓨터공학전공	최지연	교수학습센터	오렌즈방학역점
권영일	임상병리학과	이규태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최화식	임상병리학과	이래곤
권운영	국제어학과	이대성	국제교류팀	한경희	임상병리학과	이서연
김남용	공공행정학과	이명호	외식조리전공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이춘식
김미진	간호학과	이민선	간호학과	형성우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이충환
김봉건	입학사정팀	이승영	학술정보팀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장윤태
김상현	방사선학과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홍승예	바이오생태보건대학교	정유찬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이정훈	방사선학과	황만수	학팀컴퓨터공학전공	정한별
김순남	교양교육원	이주현	바이오식품산업전공	황희숙	사회복지학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순옥	간호학과	이찬주	전자공학전공	(재)롯데장학재단	(주)다산복스	한국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주)
김용섭	교양교육원	이현숙	공연예술전공	(주)의정부기아자동차서비스	홍은숙	
김용훈	대외협력팀	이현숙	공연예술전공	강기봉		
김창희	학생상담센터	이호상	공공행정학과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김현우	교양교육원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김정욱		
김홍빈	대학본부	장인봉	공공행정학과	김준석		
민원표	교양교육원	전범주	에너지환경공학과	김진경		
박주원	유아교육과	전영주	홍보팀	남궁혁		
박진우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정선도	임상병리학과	대한방사선사협회경기도회		
배시애	교양교육원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도서출판 창지사		
배영금	국제어학과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도영푸드피아		
변현진	산업디자인전공	조명래	재무회계팀	박광용		
서장훈	임상병리학과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박성모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조성윤	시설지원팀	송내교회		
송운홍	경기북부개발연구원	조우택	입학총괄팀	송배은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주영훈	공연예술전공	송용호		
오이균	공공행정학과	진선범	교육총괄팀			

지원내역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인(비동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명(상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			
	<small>필수항목은 법인세법 제24조 / 소특세법 제160조 / 소특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미 발급 기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후면 참조)</small>			
	연락처			
인적사항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E-mail			
우편물 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기부추천인	*여러명일 경우 학과명 또는 부서명 기재요망	
약정	총액	금()원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부금도	<input type="checkbox"/>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지정발전기금		()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 휴대폰결제	입금자명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급여이체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2~5 (Fax 3169)
-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9. 05/ 197호

편집후기

신대현 기자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4학년이 되어서도 신문사 기자로 남아 있을지. 취업전선에 뛰어들 나이이지만 여전히 나는 학교에, 신문사에 남아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취직해 회의와 야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는 과제와 기사마감에 쫓기고 있다. 하지만 결코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흘린 땀과 들인 열정은 좋은 양분이 되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활짝 피울 것이고, 이윽고 맺은 열매는 달고 맛있을 것이라. 나는 그렇게 믿는다.

김민성 기자

2학년으로서 처음 작성하는 '독독'이다. 많은 게 바뀌었지만, 신문사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 안도감과 동시에 많은 생각이 든다. 1년 동안 신문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상쾌한 1년을 보내고 군대나 가야겠다...

김민주 수습기자

수습기자가 되고 처음으로 기사를 쓰게 되었다. 내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는 생각에 다른 글을 쓸 때보다 부담되고 더 어렵게 느껴졌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지만 점점 더 발전하는 앞으로의 나의 기자 생활이 기대된다.

조유빈 수습기자

수습기자가 되고 신한특독 발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것을 표현하기 조금 어렵지만 신문사에 계시는 교수님과 선배들께 많이 배워가고 싶다. 그렇게 하나 하나 도전하고 넘어가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글을 적을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든다.

조희지 기자

드디어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기자가 되었다. 인터뷰도 직접 해보고 자료도 받아보면서 정기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걸 경험하고 싶다. 열심히, 잘 하는 기자가 되어야겠다.

박현규 기자

올해로 4년차. 나의 대학생활을 신한대학교 신문사와 함께 보냈다. 혹자는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많은 글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미숙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한 글을 써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점차 완벽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다.

처음 신문에 들어올 때와 지금의 마음가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독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의 글이 읽기 좋고 재미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저,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이 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정윤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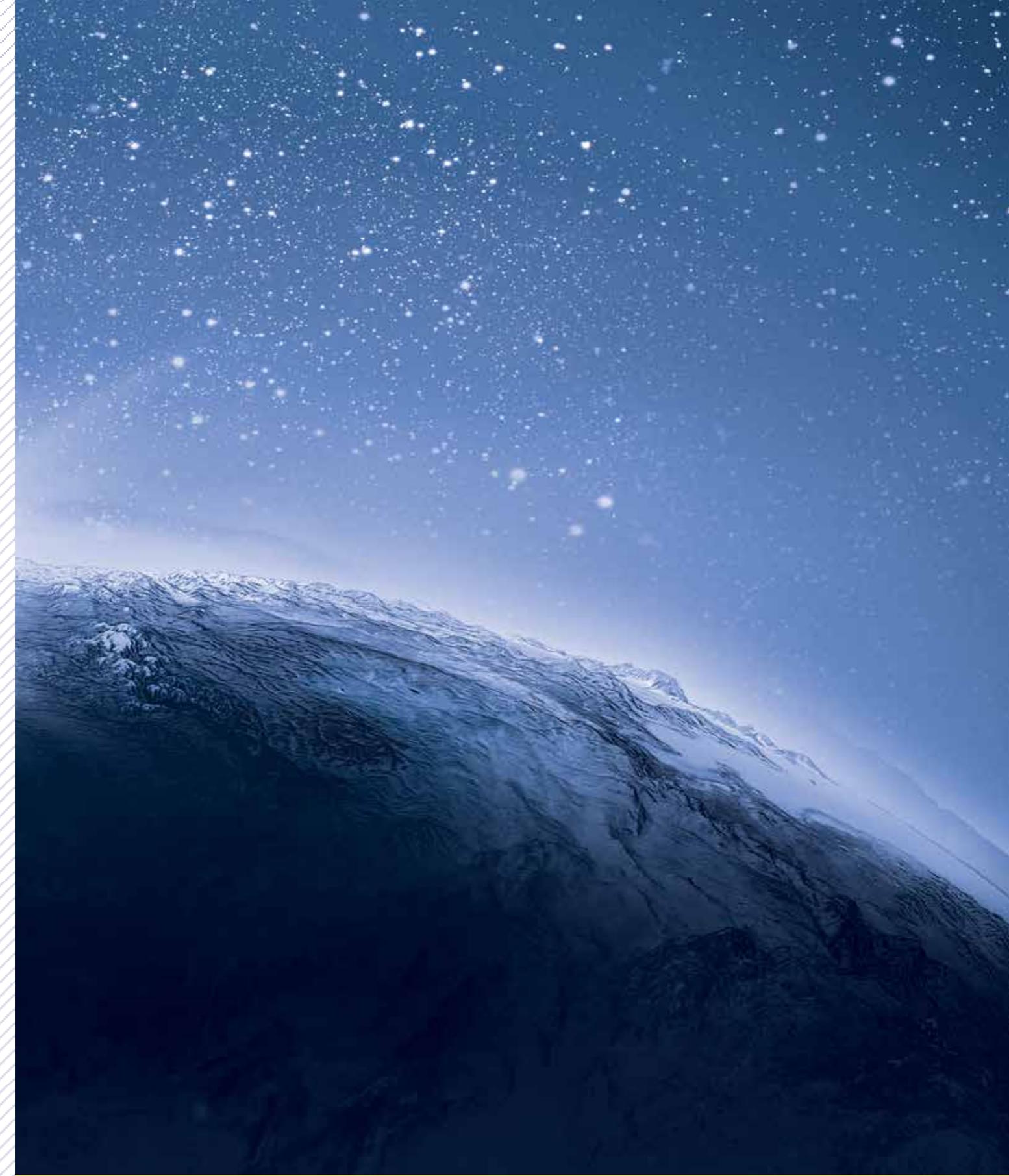
어느덧 봄이 찾아와 캠퍼스 내에 벚나무들이 만개하여 벚꽃잎이 살랑거리는 분홍 봄바람을 불어온다. 따뜻한 봄, 꽃놀이도 가지 못한 기자들의 고된 취재와 밤샘 마감으로 작성된 이번 신한특독 197호가 보다 더 많은 학우의 손 안에 들려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최수민 편집장

편집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 발간하는 197호는 매 학기 발행해왔던 신한특독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다들 학업과 개인 활동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이번 호를 풍성하게 만드느라 열심히 취재해주어 기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 또한 몇 년 전에는 수습기자였고,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만큼 기존의 기자들과 새로운 수습기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해주고 싶다. 한결같이 소중한 그들과 함께 2019년의 신한특독을 알차게 꾸려가고 싶다.

한규현 기자

2019년의 첫 신한특독을 맞이하게 되어서 새 출발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작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 같다. 새로 들어온 수습기자 친구들과 함께 이번 호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싶다.



미래를 위한 신의 한수

4년의 투자 40년의 가치 **신한대학교**

- ① 역세권 지하철 도봉산역 3분, 망월사역 1분
- ① 숲세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그린캠퍼스
- ① 핫세권 미군 2사단 캠프 영어 인턴십 운영